

석사학위논문

장례문화의 사적 고찰을 통한
장례메이크업 제안 연구

2016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미 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장례문화의 사적 고찰을 통한
장례메이크업 제안 연구

A Study of the proposal of the Funeral Makeup through
Personal Review of Funeral Culture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미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장례문화의 사적 고찰을 통한

장례메이크업 제안 연구

A Study of the proposal of the Funeral Makeup through
Personal Review of Funeral Culture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미 회

이미희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장례문화의 사적 고찰을 통한 장례메이크업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 전공
이 미 회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의 장례문화를 분류하여 장례절차에 대한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장례메이크업의 장례서비스에서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례메이크업의 특성상 사망원인에 따라 다양한 사례별로 적용되는 메이크업 테크닉에 대해 연구하고, 일반 메이크업과 장례메이크업의 적용되는 메이크업 도구 및 재료의 차이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장례메이크업용 화장품의 개발과 장례메이크업의 표준 디자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장례문화의 사적 고찰을 통해 장례메이크업의 의미와 역할, 장례문화에서 메이크업의 적용과 발전배경, 다양한 사례별 장례메이크업 적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남자 6명 및 여자 10명 총 16명의 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망원인은 남자 시신은 주로 사고사가 많았고, 여자 시신은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남자 고인은 24세부터 68세까지이며, 여자 고인은 43세부터 88세까지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기초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는 첫째, 말기 암이나 일반 병사 고인의 경우는 피부색이 변색한 부분이나 함몰된 부분을 생전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였고 둘째, 나병시신과 수녀시신의 경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완성하였고 셋째,

화재사의 경우 작고 큰 수포들을 재현하고 피부의 탈수와 변색된 부분을 복원하여 전체적으로 본래의 얼굴 형태로 찾아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분석되었고 넷째, 다운증후군 시신의 경우 얼굴에 습윤이 너무 많았고 메이크업 도중 눈과 코, 입으로 혈흔이 계속 나와서 제거 후 드라이기로 말린 뒤 왁스처리 후 기본 베이스메이크업을 하였고 눈의 색도 등을 완전히 커버해 주었고 다섯째, 부검시신의 경우 봉합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머리털(모근)을 봉합하기가 가장 어려웠고 얼굴에 기본베이스 메이크업은 잘 되었다.

일반메이크업의 적용은 대상자와 시술자가 수평관계이며, 실행과정에서 거울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되지만 장례메이크업은 시술자와 대상자인 고인의 위치는 수직적 위치이며, 활동 반경도 제한적이고, 메이크업 결과는 시술자의 능력과 주관적인 견해만 반영된다. 장례화장품은 시신의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종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은 감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용 후 소독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통 장례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위생적이고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위해서는 장례메이크업의 올바른 적용과 효과 창출이 필요하며 장례 절차와 방법의 개선도 함께 변화가 필요하다.

【주요어】 장례문화, 시신, 메이크업, 장례메이크업, 장례화장품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2.1 연구내용	4
2.2 연구방법	5
II. 장례문화의 유형분류	7
1. 지역적 특성	7
2. 종교적 특성	7
3. 세계의 장례문화와 메이크업	9
3.1 세계 장례문화의 흐름	9
3.2 장례문화와 메이크업	10
4. 한국의 장례 풍습과 메이크업 적용	15
4.1 우리나라 전통 장례절차	15
4.2 전통 장례와 메이크업	17
4.3 우리나라 종교별 장례절차와 메이크업	18
4.4 장례유형과 현대 장례식에서 메이크업 적용	20
5. 장례메이크업의 특성 연구	22
5.1 신체 조직의 사후 변화	22
5.2 피부 조직의 사후 변화	26
5.3 장례메이크업의 이해	28
5.4 장례메이크업의 종류	29

5.5 사후 장례메이크업의 기본적인 요소	30
5.6 장례메이크업의 색상과 장례연출	30
III. 장례 유형별 장례메이크업의 발전 배경	35
1. 장례문화의 발달과 메이크업의 필요성	35
2. 장례메이크업의 발전 배경	37
3. 우리나라 장례메이크업에 대한 인식	39
4. 일반메이크업과 장례메이크업의 특성과 차이점	40
4.1 일반메이크업의 특성	40
4.2 장례메이크업의 특성	40
IV. 장례메이크업 제안연구	43
1. 제안연구 사례 1 -생전 노인의 일반메이크업	43
1.1 일반메이크업 적용 순서	43
1.2 생전노인의 일반메이크업 적용 사례	43
2. 제안연구 사례 2 -사후 고인의 장례메이크업	44
2.1 장례메이크업의 기본 순서	44
2.2 고인을 대상으로 한 장례메이크업 적용 사례	52
2.3 장례메이크업의 특성 분석	69
V. 결론	73
참고문헌	77
ABSTRACT	80

[표 목차]

<표 1> 장례메이크업 적용 대상 고인들의 특성	4
<표 2> 미국 장례식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례메이크업 진행과정	12
<표 3> 현대 장례의 일반적인 절차 과정(3일장 중심)	20
<표 4> 장례와 장례메이크업에 연관된 색상과 의미	32
<표 5> 우리나라와 서양의 장례메이크업 발전 비교	38
<표 6> 일반메이크업과 장례메이크업의 차이점	41

[그림 목차]

<그림 1> 미국 Dodge사 장례메이크업 용 화장품	14
<그림 2> 노인 메이크업 사례: 할아버지(좌) 할머니(우)	44
<그림 3> 고인과 용품의 위치	45
<그림 4> 얼굴 마사지 설명(좌)와 고인에 적용사례(우).....	46
<그림 5> 과량의 마사지크림을 티슈로 제거하는 모습	46
<그림 6> 파운데이션 적용, 인형(좌), 고인에 적용 사례(우)	47
<그림 7> 파우더를 스폰지(좌)와 브러시(우)로 처리하는 과정	47
<그림 8> 마네킹을 이용한 얼굴 눈썹 그리기	48
<그림 9> 색도과정, 할머니(좌), 할아버지(중), 인형에 적용 후(우)	49
<그림 10> 브러시로 아이라인 하기(좌)와 속눈썹 붙이기(우)	50
<그림 11> 볼터치하기 방법(좌)와 인형에 적용 결과(우)	51
<그림 12> 입술 그리기 방법(좌)과 모델에 적용하기(우).....	53
<그림 13> 故 이0준 어르신 메이크업 과정	54
<그림 14> 故 신0정 어르신(여자) 메이크업 전(좌), 적용 후(우)	55
<그림 15> 故 오0진 어르신(여자), 보라색으로 색도하는 과정	62
<그림 16> 故 성명미상(남자), 마사지 크림 적용과정	65
<그림 17> 故 이0현(여자) 속눈썹 정리(좌), 브러시를 이용한 색딩과정(우).....	67
<그림 18> 故 00수녀님, 파운데이션 바르는 과정.....	68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례 문화사적 고찰을 통해 장례메이크업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특성연구를 함으로써 슬프지만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지향하고 고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유가족들에게도 가족을 상실한 슬픔의 후유증에 빠지지 말고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복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장례 메이크업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전문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란 점에서도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장례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는 고인과의 마지막 접견(viewing)을 하기 위함이다. 고인의 모습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하고 주변은 안락하게 실내장식으로 예쁘게 꾸며 유가족과 조문객들이 와서 고인에 대한 존경심과 명복을 비는 마음을 고인에게 표현(정진구 2013, Klicker 1999)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족이 마지막으로 이별함에 있어 고인에게 행해지는 화장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화장의 목적은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 개념이 다르다.

통상적으로는 외국에서는 장례메이크업은 장례행사 전에 장례관계자, 위생처리사(embalmer), 고인과 가족, 가까운 지인들이 함께 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인의 얼굴에 생성된 주근깨, 검버섯, 기미, 주름, 혹 등의 결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여 생전의 그 사람의 인상에 가깝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례메이크업의 중요한 역할은 유가족과 지인들이 자연스럽게 고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여지게 하고, 생전모습 그대로를 살려서 장례식장 현장에서의 유족의 슬픔을 적절히 해소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검의 현장에서 유가족과 지인들의 고통과 충격, 슬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해드리고자 일부 대형병원장례식장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도시의 장례식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연구되었으며, 국내에서

장례메이크업 관련 연구는 장례식장 공간에서의 색의 중요성을 유족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접근한 선행연구는 없었고, 또한

장례메이크업의 실 사례를 통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로 본 연구는 사망원인이 다양한 시신에 적용 될 수 있는 장례메이크업의 접근과 일반메이크업과 장례메이크업용 화장품 차이점 등을 알아보고 향후 장례전용 화장품의 개발과 장례메이크업 표준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끝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여겨왔으며, 사회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개념과 남겨진 유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Carl Becker 2015). 그래서 장례의식은 인간은 사회 공동체를 통해 각 민족마다 그 특성과 방법은 다르지만 고유한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발전해 오고 있다.

장례식 행사에서 고인은 의례의 주인공이지만 주체가 될 수 없고 살아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 장례의례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장례의례 행사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주도 되지만 넓게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속했던 사회공동체 및 국가에 의해 주도 되고 진행되기도 한다.(김수봉 2013) 장례식 절차는 장례일정과 절차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시신에 대한 염습과 입관을 진행하며, 조문에 대한 접대, 장법에 따라서는 매장 또는 화장 후 봉안을 하게 된다. 1990년대 전반기 이전만 하더라도 장례식은 자택 장으로 가정에서 의례를 진행 했던 것이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의 가족 형태의 변화, 의식의 변화, 제도의 변화 등으로 장례식은 점차 전문화와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장례식장의 시설 개선과 더불어 장례식장의 수가 증가하고 장례지도사라는 전문 인력이 배출되면서 장례식장은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필요한 유형적인 시설과 무형적인 서비스를 혼합하여 장례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장례식을 단순한 의례식이 아니라 편리성, 고급화 등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장례식장 이용률은 2011년 조사결과 97.4%에 이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장례식장의 급격한 증가, 상조회사의 발전 등으로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장례식을 경험했던 다수의 사람들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가격 중심으로만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이용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가운데 고인에 대한 화장(make up)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유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초창기 적용되었던 장례메이크업은 40-50대의 남자 종사자들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연습과정에서 고인의 얼굴에만 스킨로션을 마르고 입술 화장을 하는 수준의 단순한 기술에 불과 하였고, 지금은 대학교육과정에서 장례메이크업을 교육하고 일부 졸업자들이 적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장례메이크업은 걸음마 수준이며 진정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장례메이크업은 시신의 피부상태에 맞는 화장품과 도구를 선택하여 시신의 피부색을 생전의 피부색에 가깝도록 분장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망 후 안치되어진 고인의 모습을 생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장례메이크업 함으로써 질병과 죽음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사후 변화에서 비롯된 피부색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고인의 가장 자연스럽고 멋진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장례메이크업을 적용함으로써 고인의 모습을 통해 유족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는 장례메이크업의 사례별 메이크업 제안을 통해 장례서비스에서 장례메이크업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1.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범위 가운데 장례식에서 고인을 대상으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얻거나 무연고 시신을 대상으로 하여 장례메이크업을 직접 체험한 사례를 기술하고자 한다.

대상자는 남자 6명 및 여자 10명 총 16명의 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망원인은 남자 시신은 주로 사고사가 많았고 여자 시신은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남자 고인은 24세부터 68세까지이며, 여자 고인은 43세부터 88세까지 연령분포를 보였다.<표 1>

<표 1> 장례메이크업 대상 고인들의 특성

구분	남성 (6명)	여성 (10명)
병사	위암(68세) 심장마비(27세) 독거노인(65세)	대장암(68세) 취장암(43세) 뇌출혈(88세) 피부암(49세) 다운증후군(40세) 노환(82세) 나병환자(81세) 취장암(50세) 노환(88세)
사고사	교통사고(31세) 익사(24세) 화재사고(35세)	가스사고(58세)

[※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고인 장례메이크업을 실행한 사례를 도표화 한 것임]

2.1.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장례식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염습과 입관과정에서 고인의 얼굴을 정리하고 화장을 시행하여 유가족과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중심으로 하였다.

미국 장례식에서 고인과 유가족 및 친지들과의 접견(viewing)은 큰 의미로 고인을 편안한 모습으로 연출하기 위한 장례메이크업이 필수적이며, 의례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직접 대면을 하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장례메이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접견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유가족들이 느끼는 장례메이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실제 양복, 한복, 수의, 기타 평상복 등 4가지 장례메이크업 가운데 수의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적용 대상은 사망의 주된 연령층이 되는 노인층(할머니, 할아버지)으로 하였으며 자료가 일부 수집된 장년층(40-80대 남녀), 청년층(30대 이하 남녀)도 기술 하였다.

체험했던 각 사례에서는 손상이 없는 고인을 대상으로 미국 등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메이크업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왁스 등을 적용한 복원을 시행한 시신도 포함 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 다수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과정에서 고인에게 시행되고 있는 장례메이크업의 적용사례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장례문화의 사적 이해를 위해 장례문화와 메이크업의 의미가 무엇이며, 메이크업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신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 연구를 하였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례메이크업의 발달사를 알아보기 위해 전통장례문화에서 메이크업의 적용과 현대 장례문화에서 메이크업의 도입과 발전배경 및 서양 장례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장례메이크업의 현황을 문헌 연구를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장례메이크업과 일반 메이크업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메이크업은 봉사활동 과정에서 체험했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장례메이크업은 고인을 대상으로 직접 체험한 다양한 시신별 장례메이크업 적용사례들을 정리하여 살아 있는 사람과 시신에 적용되는 메이크업의 차이점, 적용되는 화장품의 특성과 차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장례문화의 유형분류

1. 지역적 특성

세계에는 다양한 장례문화가 있는데, 현재 세계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장례 관습은 일견 불규칙하게도 보이며 적당히 내키는 대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장례관습을 채택한 배경에는 특정의 지역에 사는 당사자끼리의 암묵의 양해 하에 당시의 관계자들이 그 지역의 기후풍토와 나라의 사정과 인종, 사회, 정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서로가 납득이 가는 형태로 행해져 온 문화적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장례관습의 차이를 비교연구하면 각각의 나라의 사정과 민족색(民族色), 사회적 전통, 또는 개인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등을 알 수가 있다.(松濤弘道2000)

본 연구에서는 각 종교에 나타난 내세관과 문화권마다 달라지는 장례형태와 문화마다 다른 죽음의 색깔과 한국인의 상 제례 풍습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 종교적 특성

인류는 선사시대 이전부터 이미 육체의 소멸을 완전한 끝으로 보지 않고, 내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신을 사후세계로 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식을 거행해 왔다. 이러한 믿음은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죽음 이후에도 영혼의 생명력이 지속된다는 내세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는 반면, 내세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느냐의 방식에 대해서는 각 문화 혹은 종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환적 시간관을 공유했던 문화권에서는 주로 '윤회'라는 개념에 의존하여 생명의 지속성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있었던 문화권에는 대개 '부활'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에서는 죽은 자의 혼백은 산 자의 정신과 신체처럼 사후세계에서도 생활을 한다고 믿

있으며 따라서 죽은 자와 산 자도 똑 같이 의. 식 .주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때의 사회적 지위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힌두교에서는 우주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주적 에너지의 진보가 이름과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베다경전에서는 이 과정을 설명하여 브라만(Brahman)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마다 표현했으며 따라서 힌두교는 영혼이 죽음과 함께 절멸하거나 탄생과 함께 생겨났다고 믿지 않는다. 그것은 우주 질서의 개념과 모순되고 힌두교가 말하는 윤회는 영혼불멸성의 관념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로 화신(火神)한 아트만(Atman)이 우리의 몸 안에서 유년, 청년, 노년의 단계를 거쳐 가듯이 또 다른 몸으로 옮겨 갈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교에서도 시간의 종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세계의 체계가 생겨나고 머물고 멈춰지는 순환적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힌두교와 불교는 부활과 구원에 대해 말하지 않는데, 순환적 시간관에 기초하고 있는 양 종교의 교리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인간은 업보를 짓게 되고 이것은 모든 번뇌와 고통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양 종교는 구원이 아닌 해방을 강조하며, 즉 인간은 윤회의 순환 고리로 부터 해방 될 때 비로써 자유를 얻게 된다. 힌두교는 아트만(자아)과 부라만의 합일을 통해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사상을 가르키며, 불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즉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세계의 장례문화, 2006)

본 연구자는 일본의 경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은 부활사상이 지배적이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세 종교는 모두 유일신 하느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숭배하며 아부라함을 신앙의 공통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 종교는 동양의 종교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 세 종교는 무엇보다도 세계는 창조의 때가 있으므로 끝나는 날도 있을 것이라는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있다.

기독교는 최후의 날에 예수가 재림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한다. 이슬람의 관점도 이와 비슷하다. 이슬람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필’(Israfil)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내려와 나팔을 분다. 그 순간 지하에

서 숨 쉬고 있었던 죽은 자들의 영혼이 부활하게 된다.

부활은 직선적 시간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다. 죽음과 함께 종결된 생명의 시간이 또 하나의 지속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살아나는 것뿐이다. 부활은 윤회와 전혀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서 양자의 개념적 차이는 상이한 구원관을 낳았다.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해방을 얻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긴다. 즉 회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염원하는 구원이다. 그에 반해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또한 불교와 힌두교는 그 해방은 수행자의 자각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두 종교는 자력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은 창조주의 은총에 의해서만 거듭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세 종교는 타력종교라고 볼 수 있다.

3. 세계의 장례문화와 메이크업

3.1 세계 장례문화의 흐름

장례문화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문화로 지속되어 왔으나 시대의 변천과 함께 장례문화 또한 이제는 정보화시대와 더불어 지역밀착산업이라는 범주 속에서 국제화, 양극화, 다양화, 친환경화라는 4개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례는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을 구입하고 감염방지를 위해 위생처리를 하고 아름답게 고인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고인메이크업을 기본적으로 실시한다. 관에 모셔진 고인은 생화(生花)로 설치된 제단에 모시고 주변을 조화(弔花)로 연출하여 영결식장에서 고인의 생전업적을 보이는 영상자료의 편집과 이용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례문화의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서비스의 질과 방법 등을 분석하여 이용객들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다.

장례관련 과거사회와 현재사회는 확연히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미래 사회에 나타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서비스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방향설정

을 두어야 할 것인가가 금후의 과제이다.

미국, 유럽, 호주대륙 등 대부분의 서구권 문화에서는 고인과의 마지막 접견에 큰 의미를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인을 위생처리(embalming)하고 메이크업과 연출을 하여 마지막 고별식을 장례의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정진구 2009)

서구권 중 미국이 장례메이크업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장례문화와 메이크업 위주로 연구하고자 한다.

3.2 미국의 장례문화와 메이크업

미국의 장례에서 접견(viewing)은 우리의 조문과 같은 성격이지만 다른 점은 정해진 시간에서 접견을 하기 위해서 고인을 소독하고 부패가 되지 않도록 약품을 주입한다. 장례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시신으로부터 부패 및 감염방지를 위해 동맥과 정맥을 이용한 약품주입하고 혈액을 배출하고, 체강에 존재하는 각종 분비물이나 체액 등을 제거하고 방부약품을 주입한 다음 메이크업을 한다(Davidson 과 Benjamin 2006),

메이크업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고인을 표현하고 수의를 입혀 관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유가족이나 친지들과 마지막 접견의식을 갖는다. 그래서 장례메이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긴다.

미국의 장례에서 좋은 화장(化粧)은 시체 방부처리(embalming)하는 테이블 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Pierce, 1998). 화장(make up)은 아마 장례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면 중 하나이지만 그것은 가장 무시되기 쉽다고 한다. 사망자가 어떻게 보여 지는가는 장례식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장례식 후에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화장 작업은 장례식을 더 나은 행사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장례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

눈을 감길 때에는 먼저 눈에서 이물질들을 모두 제거해서 눈꺼풀 안쪽도 깨끗하게 정리하여 계속 감긴 상태를 유지시킨다. 속눈썹을 펼치게 하고, 눈꺼풀의 피부를 더욱 젊어 보이도록 하여 편해보이도록 만든다. 입은 즐거운 듯

한 표정으로 만들어야하고, 다른 얼굴의 표정들과 대칭을 이루어야 한다. 가족들의 가장 흔한 불만이 입이 너무 넓어졌다 거나 입이 너무 짝 찬 것처럼 보인다든가 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불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수정해야한다.(Pierce, 1998)

남성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는 것처럼 베이스나 커버크림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남성에게 투명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투명한 화장품은 주근깨와 다른 눈에 띄는 색깔을 들여다보일 수 있게 해준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특별히 어떤 부위가 변색된 것에 대해 걱정해서 그 부위를 평생 동안 감추고 다녔다면, 그 가족들과 상담하여 불투명화장품을 이용하여 평소와 같이 표시나지 않게 화장을 한다. 그래서 장례메이크업은 가능한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연출해내고, 그 개인이 살아생전에 하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재현해 주는 것이다.(Mayer 2000)

화장은 약하게 하는 것이 너무 진하게 하는 것 보다는 낫다. 가볍게 화장함으로써, 진하게 했을 때보다 보다 훨씬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만약 변색된 부위가 있다면, 기름과 크림, 털(毛)을 제거하여 얼굴표면이 깨끗하도록 만들어 좋은 색감을 내고 강조부위를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 위해 화장을 하여 마치 어떠한 변색이나 상처도 없었던 것처럼 한다.(Mayer, 1974, 황규성 등2003)

황달, 일산화탄소 중독사, 혹은 부패 때문에 얼굴 전체가 변색되었다면 커버크림을 모두 발라야 한다. 강조하고자 하는 색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내기 위해, 커버크림을 바른 위에 혹은 커버크림과 섞어서 발라야 한다. 이런 시신이 전체 얼굴에 커버 크림을 발라야하는 경우이다.

절개된 부위나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절개 피부부위는 건조제로 방부 처리된 후에 처리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왁스로 붙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절개부위가 새는지를 확인한 다음 화장을 한다. 화장 순서는 손상된 부분이 없는 넓은 부분을 먼저 화장을 하고, 원하던 색을 얻어낸 후에는 손상된 부위에 화장을 한다. 매우 작은 상처는 피부의 색에 맞도록 커버크림을 사용해서 덮어 버릴 수 있지만 상처가 너무 클 때는 왁스를 사용한다.

머리카락 복원은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수정작업 중에서 가장 어

려운 부분이다. 만약 손에 변색이나 상처 난 부위가 없다면, 강조될 부위에 색조제품을 가볍게 입힐 수 있다. 변색이 있는 경우 얼굴색과 맞춘 크림으로 가려질 수 있고 상처는 왁스칠을 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 얼굴의 색과 같아야한다는 것이다.(Mayer 2000, 서분희 2003) 미국 장례식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례메이크업 진행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미국 장례식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례메이크업 진행과정

절차단계	주요 관점	실행 내용
준비과정	• 장례식장 냉장 안치 전에 시신 자세잡기	• 손과 발의 배위 자세 • 얼굴과 손은 탈수 방지를 위해 덮어줌
	• 얼굴 사진 준비	• 생전 사진을 통해 얼굴 특징 분석
	• 실내온도	• 냉장된 시신은 화장을 하기 전에 실내 온도 수준으로 피부온도를 높여줌
화 장 전 처리	• 소독	• 소독과 탈취효과 동시
	• 세척	• 피부 불순물 제거를 위해 살균비누 이용 • 얼굴과 손을 중점, 머리세척, 후 소독
	• 피부상태 조절	• 얼굴과 손 피부 습기 조성 • 마사지크림 이용, 도포 후 거즈로 제거
	• 면도 및 잔털 정리	• 솜털 면도 후 마사지크림 도포
외모잡기	• 입	• 입모양 잡기 • 입술 주름과 고랑 및 인중잡기
	• 코	• 코 구멍 안 살균스프레이 적용 • 코털 다듬기
	• 눈	• 눈 감기기(안구 캡 적용) • 속눈썹과 눈썹 정리
	• 귀	• 소독스프레이로 바깥부분 소독 및 컷볼정리
	• 손 모양 잡기	• 소독 후 피부표면과 손톱세척 후 마사지 크림 도포 • 손모양은 약하게 공을 쥐고 있는 듯 약간 구부린 형태
화장품	• 피부 색조 배합(내부,	• 체색매체 - 액체화장품, 크림화장품

적용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명 액체 및 크림화장품 ② 반불투명 액체 및 크림화장품 ③ 불투명 액체 및 크림화장품 ④ 파우더 : 투명한 부류
	• 화장품 적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러시 적용 • 에어브러시 적용 • 점화법 - 피부표면 땀구멍 표현 • 손가락으로 발라주기 • 스프레이 - 묽은 용액 또는 현탁액, 압력 조절 방법 필수
화장 (make up)	• 기본적인 안색 적용	기본안색색소 - 흰색, 노란, 빨강, 갈색
	• 난색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Warm color areas - 점막, 귀와 코, 뺨, 턱, 남성이마 • Ornamental Warm color areas - 점막, 뺨, 귀, 턱, 코
	• 입술화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술 화장 • 입술의 왁스 처리
	• 눈 화장	• 눈과 눈썹화장 - 아이 색도 적용
	• 귀 부위의 미용분장	• 얼굴과 같은 색조 적용
	• 파우더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의 마지막 단계에 적용 • 3종류 : Drying, Tinting, Pigmenting

[※ 본 도표는 연구자가 미국 장례메이크업의 교육과 실행 경험을 재구성한 것임]



고인 전용 Makeup Box



스프레이 화장품
[미국 Dodge]



상처 복원용 왁스
[미국 Dodge]



Kalochrome Cream
[미국 Dodge]

<그림 1> 미국 Dodge사 장례메이크업 용 화장품

4. 한국의 장례풍습과 메이크업의 적용

4.1 우리나라 전통 장례절차

전통시대의 상 장례 풍속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대로 갈수록 제한적인 기록에 그치고 있다. 문헌상의 기록으로는 중국의 삼국지와 후한서가 있고 국내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다. 고려시대 이전까지의 장례절차는 상기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장례의 절차와 풍속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 보니 옛날사람들의 무덤인 고분의 형태와 부장품을 통해 그들의 장례풍속과 내세관을 헤아려 볼 수 있다.(이철영, 2008)

고려후기 주자학의 도입은 우리나라 상장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표방한 조선 초기까지도 불교식 화장제도가 성행한 점에서 볼 때 백성들의 습속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이념과 법적 처벌 그리고 관념의 변화를 가져와 점차 가묘를 세우고 매장하는 풍토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세종에 의해 편찬된 오례의 세조에 의해 편찬된 경국대전은 조선 초기 상장풍속을 유교식으로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상복을 얼마동안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당쟁이 격화될 정도로 조선시대의 상장제도는 오히려 중국에서보다 철저하게 지켜졌다.

전통사회에서 죽었다는 기준은 초혼(招魂)이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가느다란 실을 코와 입 사이 즉 인중위에 놓고 그 움직임의 여부로 판단되었다. 호흡이 느껴지지 않으면 망자의 옷을 가지고 지붕위에 올라가 망자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을 치렀다. 혼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이다. 초혼을 해도 깨어나지 않으면 비로소 죽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초혼관념은 생사관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전통사회 사람들은 사람이 생을 영혼과 육체가 일치하고 있는 상태로 보았고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이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육신으로부터 빠져나간 영혼을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죽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철영, 2008)

초혼의 또 다른 의미는 동네사람들에게 상이 났음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었다. 초혼을 통해 상이 났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하던 일을 마치고 모두 상가로 향

하였다. 동네의 우물은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잠시 폐쇄되었고 주어진 역할에 따라 그 직분을 다하였다. 상이란 갑자기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을마다 전통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었다. 상여를 매는 상두꾼들이 있고 음식을 장만하는 아낙네, 매장지를 단장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다.(이철영 2008)

죽음을 돌이켜 보려고 초혼을 하였지만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승사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면 죽은 이의 저승길이 편할 수도 있고 뜻밖에 영혼을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바람에서 저승사자를 위한 상을 차렸다. 이 상을 사자장이라 하고, 사자 상에 차린 밥을 사자밥이라 한다. 저승사자는 세 사람이 함께 다닌다. 이에 사자밥을 차릴 때는 세 그릇의 밥과 국, 간장, 그리고 먼 길을 갈아 신고 잘 가시라고 세 켈레의 짚신을 차려놓는다. 간장을 차리는 이유는 간장을 많이 먹으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 되돌아오거나 자주 쉬어 갈 거라 인식했기 때문이다.

망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입힌 후 반함(飯含)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옛날에는 금이나 옥, 엽전 등을 망자의 입에 넣어 주었으나 이후 쌀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반함은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손가락으로 세 번 떠서 망자의 입에 넣는 절차이다. 망자가 저승까지 가는데 먹을 식량인 썸이다. 반함의 절차가 끝나면 망자를 천으로 감는 절차를 거쳐 관에다 넣는 입관(入棺) 절차를 거친다.

입관 절차는 산 자와 망자가 처음으로 격리되는 순간이므로 가족들은 소리내어 울부짖는다. 망자를 다루는 손길은 입관에서 마무리된다. 이때부터 산 사람과 망자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분리된다. 입관 전까지 상주는 수시로 곡(哭)을 하지만 입관 후 부터는 조석으로만 곡을 한다. 망자의 살아생전 자손들이 아침저녁 문안드린 예에서 비롯된 조석곡은 해가 뜰 때 조곡을, 해가 질 때 석곡을 서서 행한다.(이철영 2008)

전통사회의 상례는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을 동반하였다. 이승에서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저승에서의 환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었다. 새로운 생명

이 태어나는 축복의 의식 또한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고향인 하늘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슬퍼만 할 일이 아닌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최정목 2012)

4.2 전통 장례와 메이크업

전통 장례에서는 지금처럼 기초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은 없지만 고인에 대해 씻기고 가지런히 하는 예는 찾아볼 수 있다.

전통 장례라 함은 흔히 유교적 장례방법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사례편람(四禮便覽)을 기초로 하며 상례는 크게 나누어 초종(初終), 습(襲)과 소렴(小殮) 대렴(大殮), 성복(成服), 치장(治葬)과 천구(遷柩), 발인(發靱)과 반곡(反哭), 우제(虞祭)와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祭)와 길제(吉祭), 사당(祠堂) 묘제(墓祭)의 9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사례편람의 9 단계 가운데 시신에 대한 목욕과 정리정돈은 습(襲)과 소렴(小殮)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국조오례의(國朝五禮義)에서도 시자(侍者)는 뜨물로 머리를 감기고 빗으로 빗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머리를 묶는다 고하였다. 붉은 명주 끈으로 묶는다고 하였고, 여성일 경우에는 검은 명주 헝겊으로 머리를 묶는다. 즉, 죽은 자를 씻기고 준비된 수의를 입히는 것을 말하며, 씻기는 물은 향나무나 쑥 삶은 물을 솥에 적셔 닦아준다. 머리를 빗길 때 빠진 머리카락과 작은 손톱과 발톱, 생시에 빠진 치아는 미리 준비한 조발낭 또는 오낭이라 불리는 작은 주머니에 넣어 관속에 넣어준다(이철영 2008)

따라서, 지금과 같은 화려하고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여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욕과 빗질, 정리정돈을 통해 고인을 마지막으로 대면할 때 평온한 모습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4.3 우리나라 종교별 장례절차와 메이크업

우리나라의 장례 즉 상례는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들어오고 조선 전기에는 승유억불정책으로 불교의식이 점차 사라지면서 유교의식으로 바뀌었고, 숙종 때 이재(李穡)가 엮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이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고, 이러한 상례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였고, 현대에 들면서 가문이나 지방마다 풍습을 조금씩 달리하게 되었고, 간략화를 추구하는 현대풍조로 인하여 상례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의식에도 이러한 전통 상례가 혼입되어 변모되어 왔다.(양승이 2010).

특히, 우리나라의 종교 가운데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 장례와 흡사하며, 기독교와 천주교는 외국에서 유입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다루는 절차는 우리나라 전통 장례 방법에서 다루는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종교행사가 조금씩 다를 뿐이다.

미국 등 서양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부활이라는 신앙적 믿음 때문에 시신을 위생처리 하여 땅속의 매장 보다는 시신을 땅위에 집을 지어 안치하는 장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법(葬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종교 가운데 유교장례를 전통으로 하고, 불교, 천주교 및 기독교 장례를 중심으로 시신을 목욕하고 정리정돈 하여 메이크업이 진행되는 단계로 한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유교적 장례

상례는 크게 나누어 초종(初終), 습(襲)과 소렴(小殮) 대렴(大殮), 성복(成服), 치장(治葬)과 천구(遷柩), 발인(發靱)과 반곡(反哭), 우제(虞祭)와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祭)와 길제(吉祭), 사당(祠堂) 묘제(墓祭)의 9단계로 이루어진다.

시신에 대한 목욕과 정리정돈 및 메이크업은 습(襲)과 소렴(小殮)단계에서 간단히 이루어진다.(양승이 2010)

나. 불교 장례

불교 장례에서는 임종에서부터 입관까지의 절차는 일반 상례와 거의 유사하며 영결식인 다비식이 다를 뿐이며 장법은 화장(火葬)으로 치른다. (양승이 2010)

다. 천주교 장례

천주교인들은 생전에 영세를 받은 사람은“성교 예규”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른다. 교인으로서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 풍습이나 의식을 받아들여 종교의식과 함께 병행하기도 한다. 장례식 진행 순서는 일반적으로 중부성사(終傳聖事), 초상(初喪)과 위령 기도(慰靈祈禱) 및 미사, 염습(殮襲)과 입관(入棺), 장례식(葬禮式) 순으로 이어진다.(양승이 2010)

라. 기독교 장례

기독교 장례는 임종에서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절차가 목사의 집례(執禮)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종과 더불어 찬송과 기도로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뜻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초종 중에는 목사의 집례 아래 매일 기도회를 갖고, 유가족은 아침저녁으로 빈소에서 기도회를 가지며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한다. 고인에 목욕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메이크업을 하는 절차는 일반장례와 거의 동일하며, 다른점은 울거나 곡을 하지 않으며,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다. 또한, 조석으로 전을 올리거나 상식을 올리지 않으며, 염습 시에 매장포로 묶지 않는 경우도 많다.(양승이 2010)

4.4 장례유형과 현대 장례식에서 메이크업 적용

우리나라 장례식에서 장례 유형 즉 방법은 매장(埋葬)과 화장(火葬)으로 나눌 수 있다. 매장은 시신을 땅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것이고 화장은 시신을 불에 태워 그 유골을 시설에 봉안 또는 땅에 묻거나 나무, 화초 잔디 등에 묻거나 주변에 뿌리는 자연장 등을 하게 된다.(정영철 2013)

따라서 매장과 화장의 차이점은 고인의 처리 방법상의 차이가 되며, 본 연구 주제가 되는 장례메이크업은 장례의식 절차에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가 되는 접견 또한 장례의식 중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례 유형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례절차 과정에서는 가장먼저 사망 후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구를 하게 된다. 운구된 시신은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안치한 다음 상담(장례방법, 절차, 등)빈소설치, 조문, 연습 및 입관, 발인, 매장 또는 화장 및 봉안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 실시되는 장례식은 대부분 3일장으로 진행되며 장례의 순서와 진행방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현대 장례의 일반적인 절차 과정(3일장 중심)

일정	주요업무	직무 내용
1일	• 사망자 발생과 운구	• 발생장소 : 가정, 의료기관 등, • 운구 : 장례식장으로 차량운구
	• 장례식장 안치 및 수시	• 사망원인 확인 및 장례식장 안치실, 수시(교정, 정리)
	• 장례 상담	• 장례방법 : 매장 또는 화장, 종교별 • 장례절차 : 용품, 음식, 도우미, 상복, 제단, 접대 등
2일	• 연습 및 입관 [준비&실행]	• 준비 : 시신준비(위생처리, 소독 등), 용품준비 • 실행 ① 목욕과 정리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손, 팔, 몸, 다리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수의 입히기 : 하의→상의→두루마기 등 ③ 얼굴정리 : 메이크업→ 접견 (유가족, 종교행사) ④ 반함, 머리와 얼굴싸기 ⑤ 매질[소렴], 입관 ⑥ 재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복 및 의례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복 착의 및 성복제 의례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인상담 : 발인시간, 의례절차 등 • 장지설치 : 매장(장지 진행확인) / 화장(예약상황, 유골함 등)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정산 및 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반납, 총 장례 비용정산 • 발인식, 발인 [운구차량-캐딜락, 버스, 상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또는 화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 운구, 장지에서 하관 봉분, 성분제(의례식) • 화장 : 운구, 화장시설(화장) → 봉안 → 제의례식

[자료출처 :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일부 재구성 하였음]

5. 장례 메이크업 특성 연구

사망 후와 시신에 대해 부패 방지를 위한 화학적 방부처리를 하기 전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시신의 체내에서는 변색, 부패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사망 후 초기 시신의 변화로는 체온하강, 혈액 침하와 시반, 경직 등 물리적인 변화는 비교적 빨리 나타나며, 점차 자가용해로 인한 체구성물질의 화학활성에 의해 사후염색, 부패 등 다양한 화학적 변화가 연속해서 일어난다. (황규성 외 2003)

5.1 신체 조직의 사후 변화

가. 시반(livor mortis)의 형성

사망 후 조직액의 침강은 조직 내 체액의 중력에 의해 위치의 하방으로 가라앉는다. 혈액은 침강되어 울혈이 발생되고 그 결과 시반이 형성된다. 대략, 사망 후 30분에서 2시간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혈액의 순환이 없어지고 혈관 내에 있는 혈액들은 중력에 하방으로 이동, 침강하면서 체 표면에 변색되는 것을 시반이라 한다.

시반은 사후에 발생하며 시반의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인자로는 혈액의 양과 혈액점도에 의해 결정된다. 사망 전에 내, 외부의 출혈이나 체액의 감소는 시반의 형성을 감소시켜 많은 시간이 경과 후에도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체액량이 많거나 혈액이 묽은 시신, 냉장(동)한 시신의 경우는 정상보다 혈액의 점도가 낮아 사망 후 혈액의 침강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시반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사망초기에는 선홍색의 빨간 반점이 보이기 시작하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이 검 푸른색으로 변하는데 색깔은 사망 시 산소 농도와 부분적으로 관계있다.

울혈된 저산소증 상태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경우 피부혈관의 환원된 헤모글로빈 때문에 보다 어두운 색조를 보인다. 시반의 형성 부위는 체위에 따라 다른데 만약 누워있는 상태였다면 체액은 중력에 의해 귀 뒤, 목뒤, 등, 엉덩이,

다리 뒤쪽으로 침강을 통해 울혈이 발생되고 시반이 발생된다.(황규성 외 2003)

나. 탈수(dehydration).

체내 탈수현상은 조직내부로부터 물의 손실과 표면증발에 의한 수분 손실을 말한다. 시신에서 발생하는 탈수 현상을 대표적으로 피부에서 발생하는 표면 증발과 내부 장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혈액과 체액의 침강현상으로 발생된다. 침강 현상이 신체의 위치에 따라 다르며, 높이 있는 부위는 탈수가 빠르게 일어나고 반대로 낮은 부위는 일시적으로 수분이 증가하여 사후 부종이 될 수 있다.

탈수가 일어난 시신의 얼굴에 눈과 입의 점막이 점차 암적색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이마부위와 관골 부위는 노랑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그러나 옷을 입고 있는 몸통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늦게 일어난다.

시신 안치 냉장고에 보관된 시신은 냉장고 내부의 차가운 공기에 의해 수분이 소실된다. 안치된 시신이 맨 몸이나 면 시트를 덮었다 하더라도 시신은 탈수가 일어나지만, 시신의 몸을 플라스틱 천 또는 지퍼가 달린 플라스틱 가방 일 경우에는 수분 소실을 막을 수 있어 탈수현상이 늦게 일어난다.(황규성 외 2003)

다. 미생물의 체내 이동(endogenous invasion of microorganisms).

인체는 사망 후 체내 면역의 소실로 그 결과 사망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후 4~6시간 내에 대장(large intestine)에 생존해 있던 미생물들이 뇌척수 액에까지 침투할 수 있다.

사후 미생물의 이동과 증식은 체성죽음시간 안에 시작되며 사후 24~30 시간 내 체액 1ml당 또는 조직 1mg당 $3.0\sim 3.5 \times 10^6$ 개 정도로 증식하게 된다.

체내 일정 장소에만 존재하던 미생물이 사망 후 이동에 관여하는 요소로는 시신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 시신의 이동과 위치 변화,

미생물이 상존하던 신체 장소로부터의 혈액의 수동적 재순환, 세균의 자발적 이동능력 등이 있다. 따라서 시신의 체내에서 미생물의 이동은 시신의 체내

개구부를 통해 탈출할 수 있게 되며 주변 환경을 감염 또는 오염시킬 수 있다.(황규성 외 2003)

라. 사망 후 염색(postmortem stain)

사망 후 염색이란 적혈구의 용혈로 혈액 성분인 헤모글로빈이 혈관 밖으로 누출되면서 주변조직이 변색되는 것을 말한다.

심장이 정지된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혈액 순환의 정지로 중력에 의해 하방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후 혈관 내 혈액 변색에 의한 외표면의 시반(livor mortis)이 형성된다. 시간이 더 경과하면 정체된 혈액세포 중에서 적혈구가 파괴(용혈)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용혈은 일반적으로 사망 후 5~6시간이 경과된 후 시작되며,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르며,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냉장 시신에서 빨리 일어난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hemoglobin)을 포함하고 있어 용혈에 의해 헤모글로빈이 깨져 헴(heme)과 글로빈으로 급속하게 분해되고 헴(heme)은 혈관 벽을 통과하여 조직 내에 쌓이게 된다. 일단 염색이 되면 혈관 밖의 변화이므로 영구적 착색이 일어난다.(강대영 외 2009)

위생처리 과정에서 동맥으로 약품을 주입하면 시반(livor mortis)일 경우에는 제거되지만 사후 염색은 제거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황규성 외 2003)

마. 사망 후 경직(rigor mortis)

시체 경직은 사망 후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 근육이 굳어져 뻣뻣해지는 것으로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근육에서만 이러한 현상이다.

경직은 근육 조직 내에 더 이상 에너지(ATP)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며, 근섬유를 이루는 수축단백질들이 결합한 상태로 풀리지 않아 발생한다. 경직은 일반적으로 사후 평균 2~4시간 정도에서 나타난다. 시신의 경직 현상은 안구의 불수의근에서 시작하여 얼굴, 목, 상지, 몸통, 그리고 하지로 진행해 나간다.(황규성 외 2003)

최대 6-12시간 내에 신체 전반에 걸쳐 경직이 나타나며, 이 상태는 근육의 자가 용해가 발생할 때 까지 지속되며, 18-36시간 지나면 완전한 시신 경직

이 형성된다.

경직은 관절과 근육을 구부리고, 펴고, 돌리고 마사지함으로써 풀 수 있으며 한번 풀리면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

사망 후 경직이 있는 후 36~72시간 안에 방부처리 되지 않는 시신에서는 자연적으로 근육의 경직이 풀리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근육 단백질의 부패가 일어나는 시점이다.(강대영 외 2009)

마. 부패(decomposition).

부패는 후기 시신변화의 주요 현상으로 여러 장내 세균과 부패균으로 유발되며, 부패균은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을 따라 증식하면서 스스로 발생된 가스에 의한 압력으로 전신작용 결과 사후 순환이 발생되기도 한다.

부패균의 활동결과 체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최후에는 아민 화합물, 머캅탄, 황화가스 등의 부산물이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동반한다.

시신에서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시신에서 나타나는 소견들로는 변색, 냄새, 표피탈락, 부패가스의 생성 및 체외 분출물을 들 수 있다.

시신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시신의 부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진행속도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시신의 체내에서 부패되는 순서는 가장먼저 세포(cells)가 되고, 그다음으로 는 조직(tissues), 기관(organs)의 순서로 진행된다. 동일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세포에 따라 다르며, 조직은 연부조직(soft tissue)이 먼저 일어나고 중간정도의 굳기(firm tissue), 경조직(hard tissue) 순으로 부패된다.(황규성 외 2003)

5.2 피부 조직의 사후 변화

가. 피부변색

피부변색은 사후변화의 하나로 사망 후 피부는 혈액 양과 점도에 따라 옅은 빨강 에서 검은색까지 다양한 변색이 일어나는데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그 외 질병 치료와 관련하여 약물과 화학요법 약제에 의한 변색, 특정 질병에 의해 사전에 변색될 수도 있다.(정진구 2009)

나. 얼굴색의 변화

얼굴색은 피하의 구성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조밀해서 수분, 혈액이 모여 있기 쉽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 색의 변화가 나오기 쉬운 부분이다

사후 30분 전후 경과하면 혈액침하에 의해 얼굴색은 혈액이 빠져 창백하게 된다. 그리고 사후 대략 6시간 이후부터는 얼굴색이 약간 갈색을 띠며 창백하게 변한다. 그러나 냉장 보관한 다음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면 2~3일 정도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정진구 2009)

다. 황달과 변색

간기능 장애에 의해 황달이 있는 경우 전신 피부색은 누렇게 변화되는데 특히, 얼굴색도 함께 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망 직후부터 누런 색깔을 띄며 창백하게 된다.(정진구 2009)

라. 감염성 시신의 변색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혈액 중에는 세균들의 증식과 독소 때문에 혈액의 부패와 혈관의 부패가 보통보다 빨리 진행되어 상 흉부 등에는 부패 망이 형성되거나 복부에서는 녹색의 변색들이 나타난다. 또한 면역이 저하된 상태나 말기 암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장내세균의 급속한 증식으로 전신 부패가 촉진되며 몇 시간 후부터 안색은 녹황색을 띠며 창백하게 된다. 장내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몇 시간 후부터 전신이 팽창한다.

바. 손상된 피부(broken skin), 박피(desquamation), 표피탈락(skin-slip)

표피가 박탈된 곳은 회복 기술학적 처치 전에 건조 시킨 다음 왁스를 적용하거나 표면 처치를 한 다음 화장품의 적용이 이루어진다.

박피는 피부의 맨 위층(외피)에 밑에 있는 진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며 부패의 징후이며 피부가 잘 건조되었다면 화장품을 적용시킨다.

표피탈락에 의해 노출된 부위는 국소적 소독을 시행한다. 만약, 수포가 있으면 열어서 배액을 시키고, 표면이 깨끗하지 못한 조직은 깨끗이 제거한다.(서분희 2003)

사. 수포(blisters)

수분을 많이 함유한 표피가 볼록 올라와 있는 상태로 2도 화상이나 입술에 생긴 구순허피스 등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수포가 얼굴부위에 있고 상태가 양호하면 얼굴에 보존 젤을 발라 준 후 화장품으로 처치한다.

수포는 열어 물을 빼내고 너털거리는 피부조직을 제거하고 헤어드라이기 등으로 건조시킨 다음 왁스, 표면 풀을 적용 및 화장을 한다.

아. 욕창 (decubitus lesions)

욕창은 지속적으로 압박받는 부위에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균의 감염 등으로 피부조직이 괴사된 상태를 말한다. 발생 부위는 엉덩이, 측면고관절부위, 발뒤꿈치, 등에서 잘 보이며 피부손상에 의한 냄새가 날 수 있다.

욕창부위 처치방법은 표면을 소독한 다음 약취를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팩(pack)을 대어준다. 욕창부위에 따라 붕대로 감아줄 수도 있다. 비닐 옷이나, 의복(스타킹, 바지 등) 입혀주고 엉덩이 부위에 비닐 옷을 입힐 수 없다면 커다란 기저귀를 입혀주며 약취를 없애기 위해 비닐의복 안에 파우더를 뿌려주기도 한다.

5.3 장례메이크업의 특성

장례메이크업은 장례과정에 안치된 고인의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연출하기 위해 화장품, 화장술, 색조배합 등인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Pierce, 1998)

- 가) 고인의 특징이 가장 잘 살려진 생전의 모습으로 연출한다.
- 나) 평화로운 얼굴색과 모습을 통해 심리학적으로 유족의 슬픔을 덜어준다
- 다) 질병, 죽음 및 사후변화과정에서 소실된 정상의 피부를 재현한다.
- 라) 얼굴부위 또는 용모를 강조하거나 불편한 것을 강조되지 않게 한다.
- 마) 변색부위를 감출 수 있다.
- 바) 손상된 부위는 왁스를 이용하여 원래 피부조직과 조화롭게 한다.
- 사) 장례식 조명효과를 갖게 해 준다.

장례메이크업의 최종 목표는 자연스러운 비 화장(non-cosmatic)효과를 얻어 고인 피부에서 발산되는 색조의 모습으로 분장하는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용분장사는 얼굴색, 얼굴의 강조되는 부위, 음영부위, 난색 부위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장식적(Ornamental) 화장법은 통상적으로 화장을 해오던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 연출을 적용하는 것이다. 입술, 뺨 및 눈을 중점적으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화장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색조혼합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효과(Mayer, 1974)를 표현할 수 있는데 장례메이크업을 실행 한 다음은 메이크업 후 피부 톤은 잘 맞추어 졌는지, 얼굴은 깨끗이 되어있는지 여부, 생전의 모습과 비슷한지, 피부의 절개부위가 잘 봉합, 복원은 잘 되었는지 여부와 머리 모양은 고인의 얼굴과 잘 어울리며 수의는 잘 입혀졌는지 여부 및 고인은 관속에 잘 모셔졌지 와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 및 행정 서류를 포함한 마지막 마무리는 잘되었는지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Pierce, 1998)

5.4 장례메이크업의 종류

가. 일반 장례메이크업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장례메이크업을 의미하며, 양복. 한복. 수의. 기타 평상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별)남자메이크업 : 정장 메이크업(양복) 한복 메이크업, 수의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눈썹, 볼터치, 입술 표현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성별)여자 메이크업 : 정장 메이크업. 수의 메이크업. 한복 메이크업. 드레스메이크업. 평상복 메이크업 기타

나이대별 메이크업 : 유아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00세의 메이크업

직업별 메이크업 : 학생, 공무원, 회사인, 종교인, 연예인. 스포츠인, 음악인, 예술가, 유명인, 기타

나. 스피드 메이크업

3분, 5분 10분 메이크업을 의미하며, 시간상 빠른 메이크업으로 눈썹, 볼터치. 입술을 터치하여 혈색만 준다.

다. 특수 메이크업

부분적인 복원이 필요하거나, 병사, 어린 아이, 그 외 기타유가족의 요구가 있어 특수메이크업을 할 때 적용된다.

라. 복원예술 메이크업

작은 봉합부터 사고사, 타살, 자살, 외인사로인하여 고인의 신체조직 일부가 떨어져 나갔거나 훼손되어진 부분을 복원 후 뷰티메이크업 하는 것을 복원예술 메이크업 이라고 한다.

마. 에어브러시 복원 메이크업

고인의 훼손된 신체 부위를 복원용 왁스를 적용한 다음 복원 후에 에어

브러시 메이크업을 한다.

5.5 사후 장례메이크업의 기본적인 요소

장례메이크업의 기본적인 요소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별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고인의 사진 등을 통해 평상시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복원술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지혈, 봉합, 눈, 입, 함몰, 작은 조직이 떨어져 나감)이 있어야 성공적인 사후 장례메이크업을 잘할 수 있다. 셋째, 어떤 경우든 화장품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개인의 특징을 살려 화장품과 잘 조화시켜 개성 있고 자연스런 화장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화장품 종류의 특성, 조색, 용도, 한계 등에 관한 지식과 전문인이 되기 위한 기술과 예술적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러(색)를 알지 못하면 조색하기가 어렵다.(서분희 2003)

장례메이크업에는 색채 학, 색상의 이해, 톤의 이해, 명도, 채도, 색상, 조색 실습, 피부색에 따른 조색, 얼굴의 골격과 피부 변색에 따른 메이크업, 연령별 메이크업, 수정 메이크업, 커버 메이크업, 헤어연출 및 네일 까지 포함된다.(Pierce, 1998)

5.6 장례메이크업의 색상과 장례연출

장례는 총론의 의미에서는 종합연출이다. 장례메이크업은 장례의 각론적 의미에서 고인의 존엄과 유족들의 슬픔치유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역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본 연구자가 전공하는‘분장예술’ 과도 그 맥락이 연결되는 장례연출이다(死化粧 2010).

장례식에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장례메이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별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억 속의 이미지 작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냉장된 시신에 화장품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개개인의 다양한 얼굴색 특징을 화장품과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한다. 또한,

다양한 화장 종류의 특성, 용도, 한계 등에 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뛰어난 숙련자가 되기 위해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손재주와 예술적 창의력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가. 색의 활성화

색이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색채학자인 D.B.judd (1900~1972)를 색채 조화론에 다음과 같이 4개로 요약하였다.

첫째, 질서의 원리이다. 이는 색채 체계에 따라 일정법칙에 의해 규칙적으로 선택된 색끼리는 조화한다.

둘째, 익숙해지는 원리이다. 이는 언제나 보는 익숙해진 색의 배열은 조화하고 있다. 민족에 따라 익숙한 고유의 색이 있다.

셋째, 유사성의 원리 또는 공통성의 원리이다. 언제나 보는 익숙해진 색의 배열(配列)을 조사하고 있다.

넷째, 명료성의 원리이다. 이는 명도(明度)나 색상(色相)등의 차이가 크고 명료한 배색은 조화하기 쉽다.

색은 주관적이고 과거의 경험에 좌우되는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이 색을 사용하면 어떤 유족이라도 치유된다고 하는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색과 유족의 심리치유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심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색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 미국의 장례업경영자는 Grief Process를 상황과 경우에 따라 Support하는 시스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장례업경영자는 물론 전화 받는 직원전원이 유족의 마음을 Care한다는 공동인식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표 4> 장례와 장례메이크업에 연관된 색상과 의미

색상	장례에서 의미
흰색	고인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우리나라 순수 상복에 사용되었고 국화꽃 색으로 사용되고, 장례식장의 벽면이나 공간에 가장 많은 적용하고 있고, 고인 메이크업 시 기본적인 중화(조색)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붉은색	고인의 명정에나 고인의 얼굴 중 입술과 볼터치에 사용되며 인간의 피를 상징함으로 살아 있음을 염원하는 뜻
파랑색	청결을 뜻하며 고인의 영혼이 맑고 좋은 곳으로 유도하는 의미
노란색	고인의 희생됨을 기리는 정신으로 표현되는 색이다. 유가족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는 심리치료효과(그리프 케어)를 볼 수 있는 색으로, 국화꽃의 컬러이고, 메이크업 시에도 많이 적용되는 색상
황금색	고인의 눈 색도와 수의 색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고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으로 볼 수 있음
검정색	고인의 눈썹과 머리카락의 색이며, 만장기를 쓸 때 사용되기도 하고, 상주의 의복으로 슬픔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색상
선홍(적)색	고인의 혈액을 의미하며, 사망원인이 일산화탄소중독, 청산가스 중독, 동사 마취약중독 사로 나타나는 색
갈색	사망원인이 염소산 칼륨 중독, 아소산 나트륨 중독사로 나타나는 색
녹색	고인이 유산화 중독사 또는 부패에서 나타나는 체표면 색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음]

나. 장례식장공간에서 색의 중요성

① 장례식장 내 방향과 각도에 의한 자연 빛의 영향

(가)북쪽

북쪽의 방향과 각도에서 오는 빛은 항상 차가운 색이다. 직접 오는 빛이 아니고 간접 빛이다. 차가운 방은 넓게 보이고 들어가면 압박감을 느낀다. 북쪽의 방향과 각도의 방은 기본적으로는 그늘진 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의 색을 사용한다. 때문에 어울리는 색은 황색, 오렌지, 적(赤), 밝은 차(茶)색은 방에 따뜻함을 가져온다.

(나)남쪽

남쪽의 방향과 각도에서 오는 빛은 항상 따뜻한 색으로 밝다. 따뜻한 색을 사용하면 방이 밝게 보인다. 때문에 청색, 회색, 청록색, 녹색 등은 방을 보다 크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동쪽

동쪽의 방향과 각도에서 오는 빛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색이기 때문에 따뜻한 색을 사용하면 방이 좁게 보인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따뜻한 빛이 들어온다. 동쪽의 방향과 각도의 방에 차가운 색을 많이 쓰면 차가운 인상을 준다. 때문에 상아색, 그린 색, 따뜻한 회색 등은 방에 밝음을 가져온다.

(라)서쪽

서쪽의 방향과 각도에서 오는 빛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색이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차가운 빛이 들어온다. 때문에 서측 방의 벽이나 책상은 직접 빛의 반사를 너무 지나치게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② 3개 방향 이상의 방향과 각도에서 햇살이 들어오는 방

다른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는 경우,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 색조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어느 방향에서의 빛의 양(시간, 면적 등)의 비율에 따라 선택한다.

③ 불황 때 유행하는 색은 흰색(白)

백은 탄생, 재생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현상이 어려울 때이다. 세계 유행 색협회발표에 의하면, < 0 에서 다시 하자 >는 심리가 있을 때 유행하는 색이다. 그러나 내장을 전부 하얀색으로 하면 청결의 이미지가 강하게 되어 병원과 같이 생명감이 없는 차가운 이미지를 만든다.(하시즈메 2003)

④ 치유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극이 적은 색조를 선택

직원복장을 포함하여 색의 조화를 손님에게 자극이 되지 않는 색을 선정하여 분위기를 만든다.

Ⅲ. 장례 유형별 장례메이크업의 발전 배경

1. 장례문화의 발달과 메이크업의 필요성

동양과 서양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와 민족은 그 나름대로의 장례문화가 있으며 그 장례문화는 대부분 하위그룹에서 상위그룹으로 올라간 문화가 아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문화이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을 막론하고 하층의 서민들은 예산과 인력과 공간이 필요한 장례문화를 주도할 능력이 허락될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장례문화는 그 자체가 권력 있는 자와 재력을 가진 자의 문화이었기 때문이다.(장만석 2008)

장례문화는 상층부의 문화로 지속되어 오다가 근대사회로 들어서는 애도공간과 추모 공간 그리고 사교공간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례식공간을 연출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 되는 장례식에서 살아 있는 사람과 고인과의 마지막으로 작별의식은 필수적이다. 사망 직전에는 많은 신체적인 변화가 뒤따른다.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인 변화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는 고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고 편안하게 교정하고 필요하면 화장(makeup)이나 복원을 하여야 한다.(김미혜 2011) 만약 장례식에서 가족들에게 고인을 보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족들에게 죽음이 라는 현실을 받아 들이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사고를 당했거나 급사했을 경우에는 현실을 더욱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이 된다. 또한,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장례식의 완전한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고인에 대한 메이크업 즉 장례메이크업(funeral makeup)은 시신을 소독하여 목욕시키고 옷을 준비해서 갈아입히는 것, 장신구를 이용해 장식하는 것, 얼굴을 치장하는 것, 머리를 손질하는 것, 즉 몸차림, 옷차림을 단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송수미 2008)

고인 메이크업은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나 머리털을 생전과 같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돈해 주는 것인데, 통상은 생전의 온화한 표정이나 안색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고인을 위한 메이크업은 고인

을 잃은데 대한 슬픔이 있지만 고인을 편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분장하여 보내드린다는 것과 특히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이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일본 등에서는 엔딩노트 등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장례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 두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장례식에 방문하는 조문객을 의식하여 보다 자신을 아름답게 보여 최후를 장식하고 싶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장만석 2008)

유족들의 슬픔치유를 위해 현실적으로 장례식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미미하며 장례지도사의 대부분이 고인에 대한 입관 등과 조문객들에 대한 식사 제공 등으로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들이 장례식이 끝난 후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유의미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세대와는 달리 전후의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세대는 몰아적인 성향이 아닌 일정한 지식을 보유하고 창조적 비판력이 있으며 자기가 원하는 장례를 원하는 경향이 있음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관계자들의 권유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장례를 치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개성화와 상복의 간소화를 원하는 간소화경향과 기존의 염습제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납득성, 그리고 교통편의와 시간의 편의 등을 고려한 편의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내 위생병원 장례식장 등 일부장례식장에는 약 80%가 고인을 염습 시 겹겹이 묶지 않고 주변국가의 예처럼 손발을 가지런히 하는 정도로 묶고, 고인을 위한 관을 선정 시 관의 색깔 또한 핑크색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제단의 생화제단 또한 다양한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는 등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후의 미래사회에 장례식의 변화를 예고하는 조짐으로 해석된다.(장만석 2008)

2. 장례메이크업의 발전 배경

현재 장례서비스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례메이크업은 미국 장례방법인 위생처리(embalming)이 도입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경기도 소재 모 전문대학에서 장례지도과를 개설하면서 미국의 장례방법인 위생처리와 회복기술학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도입되면서 장례분야에 메이크업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 장례식장에서 장례메이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사자들과 유가족들 장례메이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경쟁과 특히 비교적 젊은 여성들의 사후 메이크업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그러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기존의 40~50대 남자 장례지도사들이 메이크업에 대한 지식 없이 단순하게 스킨로션을 바르고 입술 화장을 하거나, 남성 고인에 대해서도 강한 색깔의 입술화장을 하는 등 질 낮은 단순한 장례메이크업을 적용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형태의 장례메이크업 자격증이 교부되고 있고, 일부 대형 장례식장에서는 장례메이크업 전문가에 의해 외국 선진국 수준의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유가족이 만족하는 장례메이크업 서비스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장례메이크업을 위한 전문 화장품도 소개 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미국 제품을 수입하여 제공하는 수준이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판하는 경우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에서 시신전용 화장품이 도입된 시기는 대략 2005년 미국의 제품이 들어와서 장례 메이크업이 시작 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이전부터 장례메이크업 화장품이 도입되어 장례박람회 등에서 시연과 함께 상품이 소개된바 있다. 우리나라 장례메이크업 화장품 개발은 2008년부터이며 국내 소규모 화장품 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위해 시도하였으나 그 당시 장례서비스 시장 규모가 작고 장례분야에서 메이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라 제품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제조된 장례메이크업 화장품은 일본과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장례메이크업 화장품(메이크업 키트)은 잘 만들어져 나왔으나 제품의 품명이 낮설고 사용법을 잘 모르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

<표 5> 우리나라와 서양의 장례메이크업 발전 비교

항목	우리나라	미국 등 서양
전문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과목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과목, • funeral makeup School
자격증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격증,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자격증제도, 프리랜스
장례분야에 도입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대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용 화장품 • 소수의 장례전용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전용 화장품(다양화) • 다양한 회사
시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메이크업사
실시 시기와 효과(접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과정 중간에 실시 • 10분미만의 접건 후 바로 얼굴을 싸버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처리 종료 후 • 메이크업된 얼굴을 계속 노출, 접건
일반적인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수준에 따라 수십~수 백\$

[※ 본 도표는 연구자가 한국과 미국 장례메이크업의 현황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3. 우리나라 장례메이크업에 대한 인식

장례메이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장례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미용분야의 영역확대를 도모하고 장례메이크업 교육을 통한 전문 직업인 양성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해 장례문화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최근 장례문화와 관련하여 장례메이크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로 송수미(2009)는 우리나라 장례문화와 장례메이크업에 대한 인식을, 윤문주(2010)는 장례문화의 인식과 장례메이크업 도입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송수미(2009)는 일반인과 장례관련 학생 남녀 399명을 대상으로 장례메이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남녀 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고, 남자의 경우 고인의 평온한 모습과 유족에게 남겨진 좋은 기억 때문에, 여자는 자신의 병이나 훼손된 상태로 유족에게 남겨지는 것이 안 된다는 의식이 앞서는 이유로 장례메이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서 본인과 부모 모두가 장례메이크업이 필요하며, 이런 장례메이크업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례메이크업 자체에 대한 인식 정도는 40대 이상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높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젊은 연령층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장례메이크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손상된 시신에 대한 복원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교인이 무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시신에 대한 존중의식과 종교의 죽음 관 때문에 필요성을 더 인식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장례메이크업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는 천주교와 불교에서 응답자의 75%이상이 필요성을 답한 반면 무교와 기25.8%에 불과하여 죽음에 대한 생각 정도와 종교관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장례메이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장례메이크업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공감하며, 장례메이크업 시술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장례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선호하므로 향후 전문 직업군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문주(2010)는 341명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변 장례 의식에서 응답자의 33%가 장례메이크업의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58%는 향후 이용하게 되면 전문가에게 의뢰하겠다고 하였고, 장례메이크업의 수요 측면에서는 80.1%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 일반메이크업과 장례메이크업의 특성과 차이점

4.1 일반 메이크업의 특성

일반 메이크업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예쁘게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의 얼굴에 있는 기미, 잡티, 점 등 결점을 커버 하고 돋보이게 보이고 싶은 부분은 강조하여 서로 수평적인 시각에서 메이크업에 대한 미적 감상을 느끼게 된다.(김미혜 2011).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안이 선행되고 주된 대상은 주로 여자이며 청소년부터 비교적 젊은 노인의 여성들이다. 사용하는 화장품들은 주로 투명화장품과 색조화장품들이며 피부에서 지방성분들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유지방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호한다.

4.2 장례메이크업의 특성

장례메이크업의 주된 목적은 첫째 고인 생전의 모습을 재현 해드리기 위함

이고, 둘째 주검으로 인하여 얼굴에 시반이나 사후 물리적 변화에 의한 피부 변색, 질병과 손상에 의한 물집 상처 등의 변색 등 다양한 현상들을 복원과 메이크업을 통해 생전의 자연스러움으로 연출하는 것이다.(Pierce 1998). 셋째 유족의 심리치료가 주된 목적이다. 그 주인공은 살아있을 때와 달리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될 수 있다.

이때 적용된 장례메이크업은 살아있는 사람과 고인과의 대면을 통해 표현되며 즉 유족심리치료 효과인 것이다. 이때 고인은 누운 자세에서 위를 향하고, 보는 사람은 누워 있는 고인을 아래쪽으로 내려 보는 시각을 형성한다.

사망원인에 따라서 감염 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경우 감염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시신의 사후 부패를 막기 위해 냉장고에 안치 보관하게 되므로 체표면 온도는 냉장고 내부온도로 떨어지고, 내부 환경 때문에 피부는 건조해진다.

따라서 시신에 대한 장례메이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화장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얼굴 피부의 온도를 실온 수준을 올려야하며 건조로 인한 탈수된 피부의 경우 습윤화 시켜야하고 반대로 수분이 많은 시신의 경우에는 탈수를 시켜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반 화장품으로는 위와 같은 시신의 변화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전용 화장품이 필요하다.(서분희 2003).

고인에 적용되는 화장품 이외에도 손상된 부위의 복원에 필요한 봉합기술, 접착 및 왁스 등 다양한 용품들도 필요하다.

<표 6> 일반메이크업과 장례메이크업의 차이점

	일반메이크업	장례메이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있는 사람 • 청장년층과 젊은 노년층의 주로 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은 사람 • 젊은 노년층에 이르는 모든 남자 및 여자 고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리한 것을 감추고 자신을 예쁘게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 자연스런 모습 • 평상시 편안한 얼굴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개성을 표현 	<p>으로 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과정이 선행(감염 우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안 • 정상 얼굴피부 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온도를 실온상태 유지
피부의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층 - 피부 관리를 통해 화장이 쉽게 잘됨 • 연령층 간에 차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상태가 연령층 간의 차이보다는 사후 상태가 중요 • 냉장보관에 따른 저온상태 • 건조 또는 습윤 상태로 다양
피부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미, 잡티, 점, 여드름, 주름 등을 커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색, 손상 - 사전 및 사후 변형 • 손상부위는 선 복원 처리 필수
적용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조 화장품 • 투명 화장품 • 유지방 성분이 적은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 및 불투명 화장품 • 유지성분이 많은 화장품 • 왁스
적용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술자와 대상자(살아있는 사람)가 대부분 수평 관계 • 과정에 대상자의 의견이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술자와 대상자(고인)가 대부분 수직(상하) 관계 • 적용은 작업자 견해만 반영됨(시술자의 능력)
보는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와 시각이 수평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와 시각이 상 하관계(위에서 아래로 내려 봄)

[※ 본 도표는 상기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재구성한 것임]

IV. 장례메이크업 제안 연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례메이크업에 대한 호응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생전 노인과 사망자를 대상으로 메이크업을 적용하고 그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장례메이크업에 대한 제안하고자 한다.

1. 제안연구 사례 1 - 생전 노인의 일반메이크업

1.1 일반메이크업 적용 순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메이크업은 청장년층 노인 모두 화장의 목적은 비슷하며, 일반 메이크업의 목적인 자신을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 자신의 결점을 숨기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메이크업을 주로 한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메이크업 적용순서는 세안-스킨-에센스-로션-영양크림-썬크림-메이크업베이스-파운데이션-파우더-눈썹-새도-아이라인-속눈썹-마스카라-볼터치-입술-새딩(음영)-마무리 작업 순으로 하였다.

1.2 생전노인의 일반메이크업 적용 사례

일반 메이크업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노인과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 젊은 사람은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피부가 탱글탱글 윤이 나며 잡티나 큰 주름이 없다. 베이스메이크업 만으로도 메이크업을 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피부가 수분과 유분이 없는 거의 탈수 피부이며 큰 주름, 작은 주름, 죽은 깨, 기미, 잡티, 점 등, 함몰된 곳도 많아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커버를 해

야 한다.

젊은 사람은 일반 메이크업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노인들은 메이크업을 하기도 어렵고 결과도 좋지 않다. 그러나 메이크업이 잘 적용된 경우에는 연령대를 알 수 없을 만큼 젊게 보이며 세련되어 보인다.



<그림 2> 노인 메이크업 사례: 할아버지(좌) 할머니(우)

2. 제안연구 사례 2 -사후 고인의 장례메이크업

2.1 장례메이크업의 기본 순서

우리나라 장례 절차과정에서 장례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염습하는 과정에 진행된다. 따라서 미국 선진국처럼 완전한 위생처리가 이루어진 다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감염관리를 위해서 개인위생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착용하는 개인위생 보호 장비로는 가운(위생복), 마스크, 의료용 라텍스 장갑(복원이 필요한 경우)등이 있다. 일반적인 장례메이크업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목욕 과정

- 가. 고인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겨드린다.
- 나. 물이 공급되면 소독 비누를 사용하고, 물이 없는 경우 소독용 알코올을 대신 사용한다.

(2) 연습 과정

- 가. 시신의 상태에 따라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습 전에 복원을 먼저 한다.
- 나. 안치 냉장고에 모셨던 고인을 메이크업을 위해 얼굴 온도를 올린다.
- 다. 남자의 경우 수염, 콧털 등을 깨끗이 면도기로 정리한다.

(3) 메이크업 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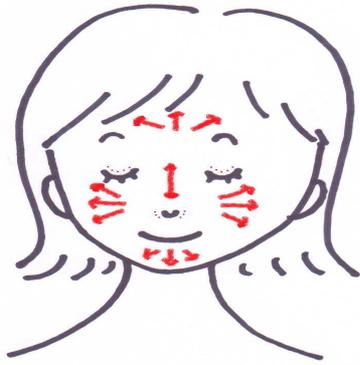
수의를 입힌 고인을 중심으로 메이크업 도구와 화장품들은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고인의 오른쪽 어깨 옆쪽에 배치한다. 만약 작업자가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왼쪽에 배치한다.



<그림 3> 고인과 용품의 위치

(4) 메이크업 준비 과정 : 얼굴 마사지하기

- 가. 양손으로 이마, 코, 양볼, 턱, 귀, 목 순서로 마사지를 한다.
- 나. 얼굴 형태를 바로잡는다. 기본 베이스메이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4> 얼굴 마사지 설명(좌)와 고인에 적용 사례(우)

(5) 메이크업 과정 : 마사지크림 적용

마사지크림을 고인의 피부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바른다. 많이 발랐을 때는 미용 티슈나, 가제손수건으로 약간 제거해 주면 되고, 마사지크림의 양에 따라 기초베이스메이크업이 잘될 수 있다.



<그림 5> 과량의 마사지크림을 티슈로 제거하는 모습

(6) 메이크업 과정 : 파운데이션 적용

- 가. 파운데이션을 색상별로 3가지 톤으로 준비한다.
- 나. 고인의 얼굴색에 맞추어 조색한다.

다. 바르는 순서는 이마에서부터 코, 양볼, 턱, 귀, 목선까지 얼룩지지 않게 곱게 펴 바른다.

라. 얼굴의 T존 부위는 약간 밝게 얼굴 외곽은 약간 어둡게 바른다.
귀 불이나, 얼굴외곽으로 시반이 생겨있기 때문이다.



<그림 6> 파운데이션 적용, 인형(좌), 고인에 적용 사례(우)

(7) 메이크업 과정 : 파우더 적용

파우더를 밝은색, 중간색 및 어두운색 등 3가지색으로 준비하여 고인의 피부색에 맞추어 조색 후 얇고 곱게 펴 바른다.



<그림 7> 파우더를 분침(좌)과 브러쉬(우)로 처리하는 과정

고인의 피부색은 생전의 모습처럼 메이크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 포인트 메이크업(색조메이크업) 과정 : 눈썹 그리기

남자의 경우에는 눈썹털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눈썹에 가볍게 터치해 주면 된다.

여자의 경우에는 거의 눈썹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있다 하더라도 희미하게 자리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눈썹 펜슬로 그려도 좋지만, 헤어컬러와 같이 맞추어서 눈썹 브러시로 컬러를 선택하여 그려주면 매우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그리는 형태는 고인의 얼굴형에 따라 아치형, 일자형, 타원형, 긴형으로 한다.



<그림 8> 마네킹을 이용한 얼굴 눈썹 그리기

(9) 포인트 메이크업(색조메이크업) 과정 : 새도하기

남자의 경우에는 눈이 매우 부어있거나 복원을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새도가 필요하지 않다.

여자의 경우 새도는 대부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며, 하게 되면 얼굴이 화사하고 예쁘게 보인다. 눈두덩이 부어올라와 있는 시신의 경우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지의 컬러와 고인의 피부컬러와 헤어컬러와 맞추어서 색도를 한다. 평소 고인이 사용하였던 컬러를 알거나 사용하던 색도 화장품을 사용하면 무난하게 연출할 수 있다.

색도를 너무 진하게 하게 되면 유가족의 불만을 표시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다. 색도 적용방법은 3단계로 나누어서 눈썹아래를 하이라이트컬러, 눈썹과 눈의 중간부분을 약간 어둡게, 눈꺼풀 맨 아래 부분을 가장 진하게 표현하여 눈두덩 전체를 그라데이션 하여 퍼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그림 9> 색도과정, 할머니(좌), 할아버지(중), 인형에 적용 후(우)

[고인에 대한 적용 사례사진 자료가 없어 살아있는 어르신 사진자료로 대신함]

(10) 포인트 메이크업(색조메이크업) 과정 : 아이라인, 속눈썹 하기

남자의 경우 복원을 하였거나 상황에 따라 그려주면 눈매가 선명해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남자의 경우 아이라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의 경우 아이라인을 필수적으로 그려준다. 아이라인을 그리는 도구는 펜슬, 붓 타입도 있지만 주로 브러시로 하며, 약간 진하게 그려준다. 고인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매우 선명하고 예쁜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그림 10> 브러쉬로 아이라인 하기(좌)와 속눈썹 붙이기(우)

(11) 포인트 메이크업(색조메이크업) 과정 : 볼터치하기

사망자의 경우 사망 후 약6시간 이후부터 피부색이 변하게 됨으로 기본 베이스메이크업으로 커버를 해도 볼터치는 매우 중요하다. 볼터치를 하게 되면 얼굴 표정을 화사하게 만들어 준다. 시신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남자는 부드러운 갈색 톤으로 약하게 터치 한다.

여자는 고인이 입고 있는 수의의 컬러와 헤어컬러, 새도와 립스틱의 컬러와 맞추어주면 가장 자연스러운 톤으로 되며, 일반적으로 핑크 또는 오렌지계열을 많이 사용 한다. 포인트 위치는 얼굴형에 따라 다르게 터치한다.



<그림 11> 볼터치하기 방법(좌)와 인형에 적용 결과(우)

긴 얼굴일 경우는 눈 아래 광대뼈 중심으로 가로로 터치해 준다. 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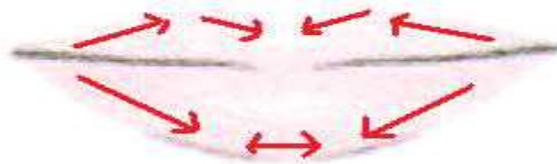
얼굴은 입 꼬리 쪽으로 향하게 터치하는 것이 좋다. 가름한 얼굴일 경우는 광대뼈를 감싸듯이 터치해준다. 짧은 얼굴일 경우는 볼터치를 약간 길게 아래로 향하게 비스듬히 터치하면 길게 보인다. 가름한 얼굴일 경우에는 눈 동공아래 부분을 둥근 형태로 가볍게 터치한다. 단, 얼굴의 구조상 볼터치의 위치가 코끝 선 아래로 내려 와서는 안 된다.

(12) 포인트 메이크업(색조메이크업) 과정 : 입술(립스틱) 그리기

남자는 밝은 갈색 톤으로 자연스럽게 립스틱을 바른다.

여자는 직업과 나이를 맞추고 헤어컬러, 수의컬러, 색도, 볼터치컬러를 맞추어 그려주면 가장 자연스럽게 연출 할 수 있다.

입술색은 고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입술모두에 커버한 상태로 립스틱을 바르면 자연스럽게 장례메이크업사가 원하는 컬러가 나올 수 있다.



<그림 12> 입술 그리기 방법(상)과 모델에 적용하기(하)

예쁜 컬러감을 연출하기 위해 립스틱 컬러는 2가지 이상의 컬러를 선택하여 덧바르면 더욱 발색이 좋다. 수정을 하거나 지우고 싶을 때는 면봉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13) 헤어(Hair) 정리

고인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얼굴 형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례메이크업이 끝나면 반드시 머리카락을 가다듬어야 한다.

노환, 병사인 경우나 오랫동안 양로원 생활을 한 고인은 머리카락이 짧으며 흰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가족과 상의 후 생전에 즐겨했던 머리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1. 염색 2. 펴기 3. 가벼운 웨이브 4. 컷트(앞머리, 전체) 5. 브리치(Bleach) 6. 틴트(Tint) 7. 부분가발 8. 전체가발)을 해드린다. 헤어연출은 고인의 성별, 연령, 얼굴형태, 피부색, 색조메이크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고인을 대상으로 한 장례메이크업 적용 사례

○ 사례 1

- 故 이0준 남자, 68세
- 사망원인 : 위암
- 고인의 외형상 특징

말기 암환자로 전체적으로 많이 마른 상태로 머리카락은 없거나 많이 짧은 상태였다. 입은 좌우 불균형하게 틀어져 있었고, 치아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로 입술은 벌어져 함몰되어 있었으며 안면에는 코 등 오른쪽과 왼쪽 눈썹 끝 아래에 상처부위가 있었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마사지크림과 핑크톤 컬러왁스를 조색하여 발랐다. 파운데이션은 23호로 약간 어둡게 생전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사진을 참고하여 맞추어 주고 벌어진 입의 양각을 두 손으로 안으로 밀어준 결과 입 모양은 조금 복구가 되었다. 입술이 벌어진 곳을 고정하고자 할 때 철사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치아는 앞 이빨이 2

개가 빠져 있었고 더 이상 교정은 하지 않고도 입술이 다물어 졌다. 파우더는 23호를 적용하여 얼굴의 생기를 주었다. 귀 볼까지 터치 하였다. 눈썹은 끝 부분만 가볍게 검정색으로 터치 하였다. 아이라인도 가볍게 터치 하였다.

볼터치는 남자이기 때문에 약한 갈색 톤으로 가볍게 터치하였다.





<그림 13> 故 이0준 어르신 메이크업 과정

[① 얼굴 면도 ② 콧털정리 ③벌어져 있는 입 ④ 교정 후 입모습 ⑤ 스킨 솜을 이용한 안면 정리 ⑥마사지크림과 얼굴마사지 ⑦ 파운데이션 처리과정 ⑧ 눈썹그리기 과정 ⑨ 메이크업하기 전 ⑩ 메이크업 완성 후

○ 사례 2

- 故 신0정, 여자, 68세
- 사망원인 : 대장암
- 고인의 외형상 특징

얼굴색깔은 진한 노란색을 띄고, 창백하였으며 고운 피부였다. 아래 입술이 다물어져 있었으며 일반적인 메이크업 적용이 가능한 고인이었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마사지크림을 소량 얼굴에 균등하게 바르고 파운데이션은 21호와 22호를 조색하여 발랐다. 파우더는 21호로 파우더 브러시로 곱게 펴 바르고 눈썹은 고인의 머리카락과 맞추어서 검정색으로 터치하였다. 색도는 고인이 평소에 색도컬러를 청색으로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여 청색으로 그라데이션 하였다. 아이라인도 약하게 그려서 눈매를 뚜렷하게 하였다. 볼터치는 주황색으로 연하게 그라데이션 하였고, 입술은 연한 핑크와 연갈색을 조색하여 발랐다.



<그림 14> 故 신0정 어르신(여자) 메이크업 전(좌), 적용 후(우)

○ 사례 3

- 故 남0이, 여자, 43세
- 사망원인 : 췌장암
- 고인의 외형상 특징

몸에 근육질이 없고 마른상태로 얼굴은 검은 빛깔을 많이 띠었다. 얼굴 양옆 볼과 귀밑 아래쪽 부분에 시반이 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마사지크림과 불투명 크림을 혼합하여 베이스로 발랐다. 파운데이션 21호 바른 후 23호를 도포하고, 2번을 도포 후 파우더23호를 발랐다. 눈썹은 진한갈색 톤으로 그렸고 색도는 연보라로 아이라인은 얇게 그렸고, 속눈썹은 술이 작은 것으로 붙였다. 볼터치는 핑크 톤으로 그라데이션 하였다. 입술도 핑크 톤으로 메이크업하였다.

○ 사례 4

- 故 김0길, 남자, 31세
- 사망원인 : 사고사
- 고인의 외형상 특징

얼굴의 이마부분과 광대뼈가 손상되어 크게 찢어진 상태였고 혈액이 많이 흘러 얼굴에는 혈흔이 많이 흘러 보기흉한 상태였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고인은 교통 사고사로서 얼굴 부분에 처치와 복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목욕과 소독을 먼저 실시하였다. 얼굴 부분에 손상된 2곳을 봉합하였다. 봉합된 자리에 왁스로 메꾸고 완전히 말린 후 파운데이션23호로 시신의 원래 피부에 맞추어 곱게 펴 발라 주었다.

파우더 23호는 큰 파우더 브러시를 이용하여 얇게 펴 발라 주었다. 생전의 피부색과 흡사하게 색상을 연출하였다. 눈썹은 비교적 진한 색상을 가진 관개로 약하게 검정색으로 터치하였다.

볼터치는 주황색과 유사한 갈색을 조색하여 혈색을 보강 하였고,

입술색은 밝은 갈색으로 마무리하였다.

○ 사례 5

○ 故 정0영, 여자, 88세

○ 사망원인 : 뇌출혈

○ 고인의 외형상 특징

얼굴빛이 붉고 오른쪽 볼과 귀 아래 시반이 아주 심하였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고인의 나이가 88세로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간단하게 스피드메이크업(눈썹과 볼터치 입술) 으로 해드렸다.

○ 사례 6

○ 故 주0도, 남자, 24세

○ 사망원인 : 익사

○ 고인의 외형상 특징

눈은 뜨고 있었고 얼굴빛은 약간 푸른색을 띠었다. 얼굴은 익사인 관계로 부종이 심하였고, 입술은 푸른색으로 혀가 입술 밖으로 나와 있었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익사는 체내에 물을 많이 흡입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염습을 하기 전에 체내에 들어있던 물을 흡입기를 통해 제거하였다.

입술 밖으로 나와 있는 혀를 양악과 입을 강하게 마사지하여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어 주었다.

얼굴 피부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며 얼굴의 부종을 교정하기 위해 얼굴 마사지를 10분 동안 하여 부종을 많이 교정하였다.

눈이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눈을 마사지하여 감겼으나 상하 눈꺼풀이 붙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어 상하 눈꺼풀은 접착제를 이용해

붙였다.

얼굴빛이 약간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마사지크림 도포하고, 불투명 크림 약간 도포 후 건조시킨 뒤 파운데이션 23호로 2~3회 곱게 펴 발라 주었다. 입술 색상까지 완전히 맞추어 주었고 파우더 22호를 곱게 펴 발랐다.

눈썹은 검정색으로 머리 컬러와 맞추어 주었고 아이라인은 약하게 그려 주었다. 볼터치는 고인의 연령이 20대 이기 때문에 연한 핑크 톤으로 가볍게 그라데이션 하였다. 입술은 투톤(연오렌지와 핑크색을 혼합)으로 발랐다. 머리는 생전사진의 형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머리 위쪽은 약하게 웨이브를 넣어 주었다.

○ 사례 7

- 故 이0자, 여자, 58세
- 사망원인 : 가스사고사
- 고인의 외형상 특징

넓은 얼굴형으로 얼굴빛은 검푸르고 눈이 감겨지지 않은 상태이며, 입술도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벌어져 있었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얼굴의 검 푸른색을 탈색하기 위해 포르말린을 이용하여 가볍게 닦아 주었다.

고인의 피부를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 왁스를 도포 후 완전히 말리고 흰색 파운데이션을 1차 도포, 2차 파운데이션 21호 도포, 3차 파운데이션 23호 도포 후 파우더 브러시를 이용하여 파우더 21호를 약간 두껍게 발랐다.

눈썹 컬러는 검정색과 갈색을 조색하여 진하게 그렸고 볼터치는 약간 선홍빛 컬러로 터치하였다. 큰 얼굴형을 커버할 수 있도록 눈 끝자리와 귀 앞 쪽에서 사선 방향으로 터치하여 그라데이션 하여 얼굴이 가름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입술은 진한 빨강으로 발라주었다. 마무리로 새딩은 갈색 톤으로 얼

굴의 외곽을 조금 진하게 머리 밑에까지 적용하였다.

머리는 고인이 평소에 올림머리를 즐겨 하였기 때문에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웨이브를 만들어 올림머리로 단장하였다.

○ 사례 8

○ 故 미확인(말레이시아 국적) 부검시신, 남자, 27세

○ 사망원인 : 심장마비

○ 고인의 외형상 특징

위생처리(Embalming)을 한 시신으로 이미 전신을 부검한 상태이며 얼굴은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부검을 하였기 때문에 두개골이 반으로 절개된 상태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면과 뒷면 모두 절개된 상태에서 봉합이 되어 있었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부검한 시신으로 봉합되어있는 부위의 실을 모두 풀어서 체내에 남아 있는 혈액과 체액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방부 약품을 넣어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두개골은 내부에도 방부 약품을 처리하고 다시 두피는 봉합하였고, 머리와 몸통의 앞면 뒷면 모두 봉합하였다. 머리는 몸조직과 달라서 피부(모근)가 약하였다. 봉합은 내부 체액 배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베이스볼봉합법으로 봉합하였다.

메이크업은 동남아시아인의 특징인 약간 붉은색이 감도는 황색의 피부였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였고 파운데이션 23호와 파우더 23호를 사용하였다. 나이가 젊어 화장은 비교적 곱게 잘 적용되었다. 눈썹은 고인의 본래 눈썹이 길어서 약하게 검정색으로 그려주었고 볼터치는 주황색으로 그라데이션 하였다. 입술은 옅은 주황색으로 발라 주었다.

○ 사례 9

○ 故 정0기, 남자, 35세

○ 사망원인 : 화재사고사

- 고인의 외형상 특징

얼굴 오른쪽 옆면은 큰 수포가 있었고, 피부는 빨갱게 되었으며 그밖에 작은 수포가 여러 개 있었다. 머리카락은 타버리고 없는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3도 화상 소견이 보였고, 다리와 엉덩이는 탄흔형태였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얼굴에 수포가 잡혀 있어서 먼저 수포 안에 있는 물을 제거하였다. 표피는 떨어지거나 너덜거리는 조직은 모두 제거하였다. 체액이 흘러나오면 깨끗이 닦아내고 기본 베이스 작업을 하였다.

컬러왁스를 피부색에 맞추어서 아주 얇고 세밀하게 바르고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말린 다음 불투명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커버하였다. 완전히 커버가 될 때 까지 파운데이션 21호로 완전 커버하였다. 파우더 브러시를 이용하여 파우더 23호를 곱게 펴 발라주었다. 눈썹은 생전의 아치형 눈썹 모양으로 진하게 그려 주었다.

볼터치는 연 갈색으로 터치하였고 입술은 주황색으로 약하게 터치하였다.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고인이 평소에 모자를 즐겨 쓰고 다녔기 때문에 모자를 씌워 연출 하였다.

- 사례 10

- 故 윤0라, 여자, 49세

- 사망원인 : 피부암

- 고인의 외형상 특징

얼굴은 부분적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단추 구멍모양으로 피부 궤양 소견이 있었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궤양부위는 소독 후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왁스에 컬러를 넣어 궤양 조직을 복원하였다. 왁스를 바른 부위를 완전히 말린 후 파운데이션 21호와 불투명 크림으로 혼합해서 도포하였다.

피부암에 의한 손상부위가 심하지 않아 다행히 이 고인은 얼굴 피부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완전히 마른 얼굴에는 파우더 23호로 완전 섬세하게 베이스작업이 끝나고 색조 메이크업을 적용하였다. 눈썹은 진한 갈색으로 고인의 둥근 얼굴을 살리기 위해 눈썹 산을 올려 주었다. 색도는 핑크색으로 그라데이션 하고 볼터치도 핑크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하였고, 입술도 핑크색 립스틱으로 메이크업 하였다.

머리털이 별로 없어 핑크색 꽃무늬가 있는 스카프를 이용하여 씌워드렸다.

수의는 중국산 실크 수의로 흰색 바탕에 핑크색으로 저고리 옷깃에 컬러가 들어간 수의여서 고인의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는 연출이었다.

○ 사례 11

- 故 오0진, 여자, 40세
- 사망원인 : 다운증후군
- 고인의 외형상 특징

염색체 이상 질환자로 안면 등 전형적인 다운증후군의 외견상 소견을 보인 사망자로 몸도 곧지 않았고 팔다리와 손과 손가락, 발가락 모두 꼬여 있었다.

- 메이크업 적용 순서

얼굴 전체가 노란빛과 선홍색의 혼합으로 얼굴빛이 다양한 변색이 되어있는 상태였다. 피부에서 끈적이는 이물질과 유분이 분출되는 상황이었다. 안구는 돌출되어 있었고 눈 주변은 약간 함몰되어 주변이 변색되어 진갈색이고, 상하 눈꺼풀은 붙어 있지 않아 마사지후 붙었다. 입모양이 바르지 않았으며 치아가 돌출된 상태이며 앞 이빨은 몇 개가 빠져있는 상태였다. 코와 눈 입속에서는 체액이 많이 흘러나와 마사지를 하고 지혈을 하는 관계로 시간이 지연되었다.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약 15분 동안 계속 얼굴을 말렸다.

먼저 변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왁스와 붉은 립스틱을 조색하여 고인의 피부색을 맞추어서 얼굴에 도포하였다. 도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분비물이 흘러 차단 작업이 중간에 계속되었다.

귀의 앞과 뒤에는 시반이 있어 모두 파운데이션 22호로 조금씩 발랐고, 눈은 피하출혈 자국처럼 눈의 아래위가 진한 갈색으로 변색되어서 함몰되어 있었다. 눈 상태는 복원은 필요하지 않았다.

메이크업을 진하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화장을 진하게 하였다. 눈 양가와 함몰된 곳은 파우더로 밝게 터치하였고 눈썹은 갈색과 검정색을 혼합하여 그려 주었다. 색도는 약간 진하게 보라색으로 커버하여 진한 색도가 된 것처럼 눈 주변 변색을 커버하였다.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다시 눈의 변색된 부분을 커버하였다. 볼터치는 나이대가 젊기 때문에 둥근 모양으로 그라데이션 하였다. 입술은 꽃분홍색으로 발라서 이미지가 화사해 보이도록 하였다.



<그림 15> 故 오0진 어르신(여자), 보라색으로 색도하는 과정

○ 사례 12

- 故 이0심, 여자, 82세
- 사망원인 : 노환
- 고인의 외형상 특징

육안 상 근육이 거의 없고 마른 상태의 시신이였다. 얼굴에는 별다른

손상이나 변화가 없었으며 일반 메이크업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졌다. 머리에는 수세 할 때 씌워진 종이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소독을 목적으로 알코올 솜으로 닦아 드렸다. 피부는 흰 편이고 머리는 짧은 컷트 머리로 흰 머리가 많고 검은 머리가 조금 있는 상태였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피부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마사지크림을 약하게 발라 마사지 했다. 파운데이션21호를 발라 화장이 쉽게 잘 되었다. 고인의 피부가 좋은 편이라서 파우더는 파우더 브러시로 22호로 얇게 발라 주었다. 눈썹은 여자이기 때문에 흰 피부이기 때문에 연갈색으로 그렸다. 눈썹 문신이 되어 있어서 완전히 커버하여 그려 주었다.

이 고인은 생전의 사진이 없어서 사망 후의 사진을 찍어서 영정 사진으로 사용하였고, 얼굴 피부가 깨끗하였기 때문에 가볍고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이 완성 되었다.

새도는 그린 색으로 연하게 그라데이션 했고, 아이라인은 눈의 길이가 얼굴형에 비해 짧아서 눈보다 조금 길게 그려주었고 볼터치는 핑크색으로 약하게 해주었다. 입술은 연한 핑크색으로 발랐다. 얼굴에 잡티가 보이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였다.

○ 사례 13

- 故 성명미상, 남자, 65세
- 사망원인 : 병사 (독거노인)
- 고인의 외형상 특징

독거노인으로 양로원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흔적이 또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얼굴은 말랐으며 몸도 야위어 있는데, 등 뒤와 엉덩이 부위에는 심한 욕창이 만들어져 있었다. 다리는 매우 야윈 형태로 시신의 성기가 부패되어 팽창되어 있었다.

얼굴은 야윈 상태로 뼈만 남아 있는 모습이었고 눈은 함몰되어 있었으며 상하 눈꺼풀은 완전히 붙어있지 않았다. 귀와 목, 가슴에 시반

이 홍색으로 많았다. 입술은 치아가 들어나 벌어져 있었고 입안도 부패되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머리카락도 많이 없었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깨끗하게 얼굴에 면도부터 하였다. 코털을 가위로 잘라내고 입안도 핀셋에 알코올 솜을 말아서 코 안을 닦아내었다. 안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었고 귀도 핀셋으로 소독 솜을 말아서 귀 바퀴와 귀 안을 깨끗이 닦아 주었다. 머리까지 닦아서 단장하였다.

얼굴 피부는 건조하였고 피부에 살이 없어서 뼈만 남은 얼굴에 메이크업하기는 쉽지 않았다. 교정메이크업을 실시하였다.

입은 양가 쪽이 함몰되어 있어 입술 안을 솜으로 조금씩 밀어 넣어 균형을 잡아 주고 특히 입술 양 끝을 잘 교정 하였다.

피부가 차가워서 약 5분정도 헤어 드라이기로 고인의 피부온도를 올려 주어 얼굴 피부 온도가 약간 올라 온 상태에서 화장을 시작하였다. 마사지 크림으로 얼굴 전체를 곱게 펴 발랐다.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마사지 크림을 양을 조금 많이 발랐다. 파운데이션 22호를 스펀지로 얇게 조금씩 펴 바르고, 파우더는 크림 형으로 곱게 펴 발랐다. 눈의 함몰된 부분은 유가족의 반대로 복원을 하지 않고 함몰된 부분만 약간 밝게 튀어나와 보이게 메이크업을 하였다.

눈썹은 검정색으로 눈썹자리 빈곳만 메꾸어 주었다. 아이라인은 검정색으로 눈매가 또렷하게 보이게 그려 주었다. 볼터치는 연 핑크색으로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와 해당 부위에 가볍게 터치하였다. 입술은 립 그로스로 살짝 터치 해주었다.



<그림 16>. 故 성명미상(남자), 마사지 크림 적용과정

○ 사례 14

- 故 김○순, 여자 81세
- 사망원인 : 나병환자
- 고인의 외형상 특징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은 편이었고 습기가 많았다. 양 귀가 있는 부위에 시반이 생성되어 있었다. 특별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헤어 드라이기로 10여분 동안 말리면서 피부온도를 올렸다. 왁스를 조금씩 얇게 발랐으며, 계속 드라이기를 이용하면서 피부온도가 약간 높아지자 왁스가 피부에 밀착되었다.

메이크업은 먼저 파운데이션 21호와 22호를 조색하여 얼굴의 전체적인 부분을 커버하였다. 특히 귀 부분은 완벽히 커버하였고 파우더는 21호로 피부변색을 커버했다. 얼굴이 넓은 형이라 양 볼과 이마 부분은 새딩하여 축소시켜 주었다. 생전사진에는 얼굴형이 가름하였고 피부가 흰색이기 때문에 조금 밝게 하였다.

얼굴의 외곽부분은 어두운 컬러로 새딩하여 얼굴을 수정하여 훨씬 작아 보였으며, 시반도 커버 되었다.

눈썹은 희미한 상태라서 검정색으로 생전의 눈썹을 재현하였고 새도는 보라색을 즐겨 하여 유가족의 요청으로 생전에 사용하던 화장품을 발라드렸다.

콧대가 낮아 콧대를 하이라이트를 주어 도드라지게 해 주었고 볼터치는 오렌지색으로 그라데이션 하였다. 볼이 넓은 편이라서 눈가 쪽에서 입가 방향으로 즉, 사선 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였다.

입술은 얼굴형에 비해 얇은 입술이었다. 입술의 외곽으로 크게 그려 주었다. 핑크색과 주황색을 조색하여 발라주었다. 머리는 이마와 맞닿은 부분이 약 10센티 정도만 희고 나머지는 검은색의 펴머리였다. 검정색 새도와 오일을 혼합하여 흰머리 부분만 터치하여 검정색으로 커버하였다.

○ 사례 15

- 故 이0현, 여자, 50세
- 사망원인 : 췌장암
- 고인의 외형상 특징

복부는 복수가 많이 차서 돌출되어 있었고, 항문 주변에서는 배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심한 악취가 났고 몸이 약한 편이었다. 몸 뒷부분은 전체에 시반이 생겨서 청록색 시반이 나타나 있었다. 오른손목과 왼쪽 팔등에 심하게 선홍빛과 연보라색의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얼굴색은 푸른빛이 나는 얼굴색이었고 입술도 검푸른 색이었다. 얼굴은 미인 형이었고 얼굴에 죽은 깨가 작고 큰 것들이 많이 있었다. 또렷한 이목구비에 예쁜 얼굴이었다.

- 메이크업 적용 방법

얼굴 피부는 탈수 소견이 보여 물에 적신 따뜻한 타올로 한 번 닦아 주고 마사지 크림을 반복해서 두 번 발라주었다.

파운데이션 21호를 얇게 펴 바르고 파우더는 23호를 발랐다. 생전의 사진에도 죽은 깨가 많았고 고인 메이크업과 생전 사진과 비슷하게 맞추어주기 위하여 열게 하였다.

눈썹은 일자형 눈썹으로 또렷하게 있었고 코도 오뎅하고 입술도 닫혀 있었다. 눈썹은 원래의 눈썹에 검정색으로 약간만 터치 해주었다.

코는 끝이 크지만 아미가 낮아서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 주었다. 볼터치는 핑크색으로 얼굴형이 계란형이라 둥글게 터치 해주었다. 입술색은 진 핑크색과 진홍색을 혼합하여 발랐다. 마지막으로 새딩 브러시로 머리와 이마의 털 사이를 새딩하여 마무리 하였다.



<그림 17> 故이0현(여자) 속눈썹 정리(좌), 브러시를 이용한 새딩과정(우)

○ 사례 16

- 故 000수녀님 88세
- 사망원인 : 노환
- 고인의 외형상 특징

노환으로 사망하신 수녀님은 일반인들보다는 얼굴이 평안하여 보였고 얼굴빛도 건강한 모습이었다. 신체도 크고 외관상 별 이상은 없어 보였다.

- 메이크업의 적용 방법

고인의 얼굴색은 하얗고 깨끗하였다. 안구는 사후에 기증하셨기 때문에 눈꺼풀을 위와 아래로 봉합된 상태였다. 눈꺼풀은 얇기 때문에 실과 바늘은 작은 것이 사용되었다.

얼굴에는 마사지 크림을 바르면서 마사지하였다. 파운데이션은 21호와 22호를 조색하여 조금씩 펴 바르고 파우더는 22호로 발랐다. 얼굴색이 편안해 보여 특별한 화장은 생략하였다. 눈썹도 고인의 원래 눈썹이 있어서 약간만 검정색으로 추가하여 터치 하여 주었다.

눈의 안구를 기증하셔서 봉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약간 진하게 아이라인을 그려 주었다.

새도는 생략하고 볼터치만 핑크색과 갈색을 조색하여 그라데이션 하였다. 입술은 연갈색과 붉은 색을 조색하여 약간만 발라드렸다.

얼굴형이 크고 넓은 형이라 새딩을 갈색 톤으로 해서 머리와 이마 사이를 새딩 해주었다. 머리는 수녀님만 쓰시는 하얀색 두건을 쓰셔서 곱게 빗어만 드렸다.



<그림 18> 故 000수녀님, 파운데이션 바르는 과정

2.3 장례메이크업의 특성 분석

2.3.1. 고인의 피부색 별 적용

① 흰색 계열 피부

자연사인 경우가 많고 위암이나 신장, 대장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다. 고인의 피부가 희고 깨끗한 편이다.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과 약간의 포인트 메이크업만 해드려도 얼굴색이 밝고 메이크업의 색채감이 살아난다.

② 노란(누런)색 계열 피부

간경화나 황달로 사망한 경우가 많고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에 조금 진한 컬러로 조색해서 메이크업 한다. 추가로 붉은색, 황색으로 조색하여 피부 톤을 맞추어준다. 사망자의 피부색이 노란색의 피부에 메이크업하기가 가장 어렵다.

③ 푸른색 계열 피부

아황산 가스사, 연탄가스사, 로 사망한 경우와 심장마비 사로 사망 한 경우이다. 기본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마사지크림 바른 후 흰색색의 파운데이션을 먼저 곱게 펴 바른다. 완전 커버한 후 파운데이션23호와 파우더23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푸른색의 피부이기 때문에 화장이 들뜨는 (피부에 밀착되지 않음)경우가 많다.

메이크업을 할 때 소량으로 여러 번 색감을 더한다.(조색) 고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된 화장술을 할 수도 있다.

④ 검정색 피부

화재 사나 흑인일 경우가 많으며, 피부가 검정색에 가깝기 때문에 컬러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화재로 인한 시신은 얼굴이나 몸의 형태가 변형되었기 쉬우며, 복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 소독 후 탈색을

해야 하며 조직이 붕괴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고인의 상태에 따라 피부 조직을 만들어 붙여주거나 얼굴, 머리 두상이 완전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가족과 상담 후 얼굴은 실리콘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친 형제 중에 모델이 되어 본을 뜨서 맞추어 붙여주고 눈썹과 머리칼은 심어주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어 붙여서 메이크업을 하면 된다.

검정색(흑인) 피부의 고인 메이크업은 기본 베이스메이크업에서 가장 진한 파운데이션24호와 짙은 황색, 검정색 을 조색하여 피부 톤과 맞춘다. 포인트 메이크업은 전체적인 이미지 톤을 낮추어서 눈썹은 검정색 색도는 어떤 색을 해도 드러나지 않는다. 주황색에 하양색과 옐로우 색을 섞어서 하면 컬러감이 있다. 볼터치는 진한 갈색과 주황색을 섞어서 메이크업 한다.

2.3.2 탈수 피부 적용

각종 암으로 사망한 시신의 얼굴은 주로 탈수 피부가 많고, 얼굴 피부 톤은 밝은 시신이 많다.

탈수 피부의 경우에는 먼저 목욕 후 마사지를 하기 전에 스팀 타올로 얼굴을 감싸준다. 약 10분정도 소요 후 피부가 부드러워지며 수분이 보충된다. 다음 마사지크림과 왁스를 1대1로 섞어서 펴 바른 후 파운데이션 바르고 파우더는 고체 형 파우더를 사용하면 수분감이 더 많아 촉촉하다.

2.3.3 습한 피부 적용

시신은 안치 냉장고에 보관되어 (냉장고 온도 4℃내외)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염습과정을 거친다하여도 30분 정도 후 메이크업을 하게 된다.

습한 고인의 얼굴을 메이크업하기란 쉽지 않다. 습한 고인은 염습실의 온도가 높을수록 좋지만 빨리 피부가 건조된다.

각종 사고사나 질병으로 사망한 환자 시신의 경우에 가끔 습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약식으로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잠깐이라도 말려주면 효과가

있다.

고인의 얼굴 피부체온도 올라가는 효과가 같이 진행된다. 마사지 크림을 바를 단계에서 왁스와 바꾸는 것이다. 왁스를 조금만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매우 효과적인 메이크업이 된다. 왁스는 피부막을 형성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2.3.4 피부 변색 커버

변색된 얼굴의 종류로는 청동색, 누른색, 초록색, 회색, 자주색, 노출된 조직의 어두운 갈색 등 다양하며, 변형된 영역은 기본적용과 왁스 적용으로 감춰질 수 있다.

적용범위는 실제 변색부위보다 크게 범위를 확장하고 자연스럽게 융화되도록 표현한다.

색조는 피부보다 더 밝은 것을 사용한다. 변색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화장품은 변색과 복구된 피부표면을 처리할 때 불투명 액체 화장품을 사용하며 자연스런 피부색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불투명 액체 화장품은 난해한 사후 변색들을 감추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형태는 액상과 에어로졸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불투명 액체 화장품은 빠르게 건조되며 자연스런 모습을 표현해 준다. 또한 피부표면에 안정성을 주어 굳어지지 않는 반투명 컬러링을 주며 모든 화장품의 기본으로 사용된다.

불투명 크림 색소는 피부 변색들을 가려주는 기능을 포함한 여러 화장 절차에 널리 사용되며, 표면의 작은 흠을 감추고 자연스런 컬러(기본 안색)을 준다. 이런 크림 화장품은 매우 다방면에 쓰이며, 특히 변색을 감추고 피부 표면을 복원시키기 위해 색조와 컬러를 조정할 경우 잘 쓰인다.

시신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변색부위로 황달, 점상출혈, 반상출혈, 타박상 등 손상되지 않은 피부표면에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변색위에 직접 불투명 리퀴드 화장품을 부드러운 브러시로 자연스러운 컬러를 골고루 발라주고 건조시킨다.

나) 가볍게 불투명 색조를 점각 하면서 기본 안색 화장품을 매끄럽게 펴

다듬어 준다.

- 다) 기본안색위로 가볍게 색조크림을 발라준다. 이는 멜라닌 색소를 대체해주는 것이다. 갈색에서 검은색의 피부에는 짙은 갈색을 사용하고, 검은색은 검은 피부에 안색으로 사용된다. 색조크림은 매우 얇게 사용해야 하며, 거의 보이지 않게 하여 불투명 화장품을 반투명의 피부색으로 만들어 준다.
- 라) 반투명 피부색 위로 흰색의 파우더를 뿌려준 후 적당히 건조시켜 파우더를 털어낸다.
- 마) 여분의 파우더를 제거한 후에 얼굴선, 주름, 반점들의 얼굴의 특징들을 만들기 위해 얇은 갈색이나 짙은 갈색, 색조크림을 사용한다. 자연스런 색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섞어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색을 할 때 우선 밝은 톤을 베이스로 깔고 약간 어두운 컬러를 위에 입혀야 자연스럽다 는 것이다.
- 바) 황달, 일산화탄소중독, 점상출혈과 같은 상태는 전체 피부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 불투명 리퀴드 색소로 기본베이스를 깔고 불투명 크림으로 덧바른다. 완전 건조 후 난색을 표현하고 파우더를 사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색부위의 솜털을 깨끗이 제거 한 후 표백제(나프탈렌, 벤진, 건조성 헤어 클리너)로 먼저 표백 후 기본베이스를 도포하고, 커버가 끝난 얼굴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미용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여 고정시키는 것이다.

VI. 결 론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시신을 절대 손상하지 않는다는 유교적인 사고 문화로 인해 죽음 자체에 대해 논의를 금기시 하는 등 죽음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며 유가족과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양적인 죽음의 시각은 삶의 연장과 생활의 일부라고 생활 속에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추모의 문화는 시신을 깨끗하게 하고, 시신의 모습을 정리 정돈하여, 손상된 시신의 경우 복원 회복시키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절차를 진행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례메이크업을 통해 슬프지만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지향하고,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해 죽음을 수용하고 유족이 정상적인 얼굴모습으로 재현시키는 장례메이크업 디자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가족들에게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후유증과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는 장례메이크업을 제시하여 향후 장례뷰티서비스업 분야에 새로운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장례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기술적인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는 장례메이크업 디자인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서양 장례문화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례메이크업을 기반으로 연구하였으며, 동서양의 장례문화와 장례메이크업의 의의와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실제 우리나라 장례식장에서 사망 원인에 따른 남녀 16명 고인의 사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연구 하였다.

첫째, 말기 암 시신과 독거노인 시신의 경우, 병원이나 노인 요양원에서의 투병생활을 많이 한 고인으로 얼굴 모양이나 피부색의 변색, 눈과 입술의 함몰형태 등으로 얼굴의 근육, 윤곽까지도 틀어져 있는 상태가 많았으며 피부색의 변색은 커버하기가 쉬웠지만 입의 함몰이나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양악을 강하게 마사지하여 맞추어 각각의 형태를 바로 잡기가 어려움이 있었다. 눈의 함몰된 부분은 아이 캡을 넣어서 눈꺼풀을 붙여주었고 구강 안이 함몰된 경우에는 구강 안을 솜으로 채워서 반듯하게 하며 생전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

해 복원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나병 시신과 수녀시신의 경우,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완성하고 색조 메이크업으로는 색도는 생략하고 아이라인만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볼터치와 입술은 자연스럽게 혈색만 보강하여 표현할 수 있었다.

셋째, 화재사의 경우, 화재시신의 수포의 물기를 제거하고 너털거리는 조직은 잘라내 변색된 부분에 왁스로 커버하고 파운데이션으로 얼굴색을 표현하였고 메이크업 도중에 혈흔과 액이 올라와 올라온 부분을 제거하여 왁스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였으나 화재사의 경우 테크닉 적으로 많은 주의를 요하는 점이 어려운 점으로 볼 수 있었다.

넷째, 다운증후군 시신의 경우, 기본베이스로 왁스를 바르고 드라이기로 말린 뒤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로 베이스를 마무리하였으며 눈썹은 검정색으로 하고 변색된 눈두덩은 진 보라색으로 색도하여 커버해 주었다. 볼터치는 핑크색으로 입술컬러도 핑크색으로 하였더니 메이크업이 화사하게 마무리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본래의 얼굴의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부검 시신의 경우, 봉합된 실을 가위로 절개하여 모두 뽑아내고 절개된 조직안의 포르말린 투여로 시신의 부패를 막는 작업부터 시작 하여 머리 부분은 두개골안의 약품처리 한 뒤 두개골을 반으로 절단된 면을 본드로 붙이고 이중으로 또 붙여준 뒤 두개골을 합쳐 주었다. 이 상태로 완전히 말린 뒤 머리털(모근)의 절단된 부분을 봉합 하였으며 모근이 약하기 때문에 봉합하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고 메이크업의 경우기본 베이스메이크업으로 마무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십여시간이 걸릴 정도로 시간소요가 막대하였으며 마무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작업으로 연구하였다.

고인에게 적용된 사례별 메이크업 결과를 근거로 기술적인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고인의 피부 온도를 실내온도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고인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표면의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어 이런 상태에서는 화장품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원하는 장례메이크업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

드시 고인의 얼굴피부 온도를 실내온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방법적으로는 따뜻한 물을 준비하여 수건 등에 적셔 고인의 안면에 수의를 입히는 시간동안 덮어두거나, 헤어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따뜻한 바람을 고인의 안면에 쬐는 방법으로 피부온도를 올리면 된다.

둘째, 고인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사망원인에 따라 변색, 손상, 사진 및 사후 변형 등 매우 다양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장례 메이크업 사는 고인의 평상시 얼굴사진 등을 이용하여 고인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야 하고 고인의 특징을 살리는 자연스러운 고인메이크업을 적용 하여야 한다.

셋째,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얼굴부위에 손상된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복원을 우선시해야 한다. 왁스, 봉합, 접착 및 불투명화장품 등을 이용하여 손상부위는 먼저 복원한 다음 고인메이크업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고사 등으로 인해 안면 손상이 있는 시신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의 심리적 상실감이 매우크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과 함께 메이크업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장례메이크업을 위한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유지방성분이 많아야 한다. 사망 후 시신은 냉장고에 안치되기 때문에 안면 탈수와 사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고인 메이크업을 잘하려면 고인전용화장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장례메이크업은 조명 연출도 함께 필요하다. 일반적인 산사람은 메이크업사와 메이크업을 받는 대상자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많다. 그러나 장례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을 한 고인과 보는 유가족이나 친지 등 대상자와의 시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는 상하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고인에 대한 메이크업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명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례화장품은 시신의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사용할 때는 개별적 소포장 보다는 부분적으로 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대용량이나 전문적인 키트가 경제적인 수 있다. 화장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은 반드시 사용 후 소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화장 도구관리는 고인에 대한 예절 위한 것이며 사용할 작업자의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다.

여섯째, 고인에 대한 메이크업 적용을 위한 시간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장례식 절차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인에 대한 메이크업 적용은 염습의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하며, 적용시간은 10-20분 정도이며 메이크업을 한 고인을 대면하는 시간도 불과 10여분에 불과하지만 사고사로 인한 시신은 복원이 우선되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것을 연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위해 장례메이크업의 올바른 적용과 효과적인 장례메이크업 디자인 창출을 위해 장례절차와 방법의 개선과 변화가 필요함을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고인의 사망이유가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병사한 고인의 메이크업이 다소 용이하였으나 췌장암이나 간암과 같은 병사의 경우 얼굴색을 자연스레 커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특히 남자 시신의 경우 사고사의 원인이 많고 출혈이 있거나 폐인부분을 먼저 단계별로 복원하여 메이크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다. 또한, 연구를 통해 용어적인 부분과 실제 고인에 대해 예의를 갖춘 전문적 시술의 기술적 정리가 미흡한 것을 이 분야의 문제점으로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장례메이크업에 관해 역사적, 어학적 뷰티 분야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 장례 뷰티 용어 정리 등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참고문헌

국외 도서 및 논문

- 松壽弘道, 2000, “세계의 장제사전”, 雄山閣. P.1.
- 死化粧, 2010, 동영상(DVD, 75분), 일본의 사꾸라 주식회사제작.
- 하시즈메, 2003. “Grief Care의 실천기법” 장례식장공간에서 색의 중요성, 일본의 전국 장례업 협동조합 연합회 관동지역 연수 자료.
- Carl Becker, 2015, Death is not an end, 2015 서울 생사문화주간 국제심포지움.
- Davidson SS, and Benjamin WH, 2006, 「Risk of infection and tracking of work-related infectious disease in the funeral industry」, Am J Infect Control, 34,655-60.
- Hawkey PM, Pedler SJ, Southall PJ, 1980. 「Streptococcus pyogenes:a forgotten occupational hazard in the mortuary」. Br Med 281:1058.
- Klicker R.L. 1999, Funeral Diresiting & Funeral Service Management, P217-220, Thanos Institute.
- Learn What Is Funeral Cosmetology? <http://learn.org/>
- Mapes, D., 2008, Final touch: A cosmetic lift for your funeral? msnbc.com <http://www.nbcnews.com>.
- Mayer R,G,. 2000, Embalming : History, Theory and Practice, McGraw Hill.
- Mayer JS. 1986, Color and Cosmetics. (3rd ed) Dallas : 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 Mayer JS. 1974, Restorative Art. (6th ed) Bergenfield, NJ : Paula Publishing Co.
- Pierce, 1998 From Alpha to Omega in the Preparation Room, Pierce chemical Royal Bond, p22-37.

국내 도서

- 강대영 외, 2009, 법의학, 정문각, P35-37
- 박태호, 2006, 장례의 역사, 서해역사문고.
-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2006), 세계의 장례문화, 한국의국어대학교출판부, p.p4-6.
- 양승이, 2010, 한국의 상례, 한길사.
- 이철영, 2008, 상제례의 정석, (재)효사랑복지재단, p56-57.
- 장만석, 2008, 장례연출의 이해, 하늘문화 p21-52.
- 정영철, 2013, 「우리나라 장사문화 현황」, 보건복지 *Issue&Focus* 제198호.
- 정진구, 2009, 시신보존위생학&“접견”장례의식, p206 - 227, 중도출판사,
- 최정목, 2012, 「장례서비스 실무」, 대학서림, pp20-21.
- 황규성 외, 2003, 시신위생처리(역사, 이론 및 실제), 대학서림.
-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ehaneul.go.kr>.

국내 논문

- 김정옥, 2011, 『국내의료종사자의 직업성 감염병』, *Hanyang Medical Rev.* 31(3):p200-210.
- 김미혜, 2011, 장례복원메이크업 사례 적용 연구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논문.
- 김수봉, 2013, 「현대장례문화 진단과 발전 방향」 혼례.장례 간소화 국민의식전환 세미나, 68-86.
- 남승현, 2014, 葬禮式場 従事者の 感染管理에 대한 認知와 適用에 관한 調査 研究,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석사논문.
- 서분희, 2003, 장례서비스 산업으로서 사자분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석사논문.
- 송수미, 2009, 우리나라 장례문화와 장례메이크업에 대한 인식조사.
- 윤문주, 2010, 장례문화의 인식과 장례메이크업 도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

화대학원.

최정목, 2011, 「사망자 취급에서 감염과 위생에 관한 조사 연구」, 대전보건
대학교 논문집, 32:p411-419.

최정목, 2013, 「의료기관내 사망자의 처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6: p140-146.

ABSTRACT

A Study of Funeral Makeup through Personal Review of Funeral Culture

Lee, Mi-Hee

Major in Make-up Art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Funeral makeup encourages a mournful yet beautiful funeral culture, creates a respectful atmosphere for the deceased and assists in the recovery of family members to overcome grief and return to their regular lifestyle.

The current study aims to not only understand funeral makeup as part of the funeral culture in South Korea but to understand its place in funeral cultures across the globe, create a makeup formula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cadavers with different causes of death,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everyday makeup and funeral makeup, develop makeup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funeral makeup and propose a standard model for funeral makeup.

Research method was utilized to examine the role and meaning of funeral makeup and understand the progressive background of makeup in funeral culture in South Korea. Various cadavers were used for the application of funeral makeup in order to identify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ng factors between makeup products used for cadavers and makeup products for everyday use as well as to differentiate

characteristics of every day makeup and funeral makeup.

The sample consisted of 16 cadavers: six male cadavers and 10 female cadavers. The main cause of death for male cadavers was accidents and for females, was death from illnesses. The age range for male cadavers was from 24 to 68 and for female cadavers was 43 to 88 years old.

The results of the funeral makeup perform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initial step in preparation for the application of funeral makeup is to thoroughly wash and sanitize the cadaver for the purpose of infection control. In order to apply makeup on the cadaver, the skin temperature of the cadaver—that has previously been kept cold— must be raised back to room temperature.

If the purpose of everyday makeup is to hide the blemishes and to enhance the features of an individual, the purpose of funeral makeup is to make the cadaver look natural.

In cases that the facial features were damaged from accidents or illnesses, the features must be restored prior to application of the funeral makeup; thus, in such cases, the process must also include technical knowledge for restoration of the facial features. Because the cadaver is dry due to dehydration, funeral makeup products must contain more fatty substances compared to everyday makeup products. Because others look at the cadaver from an aerial view, proper lighting and production is required to enhance the funeral makeup.

In case of everyday makeup, the makeup artist and the individual have a horizontal relationship and the individual can express opinions regarding the makeup using tools such as a mirror; however, in process of funeral makeup application, the makeup artist and cadaver have a vertical relationship with limited radius of work in that the result only reflects the capability and subjective view of the makeup artist.

Various types of makeup must be present to address the various conditions of the cadaver and all tools used for the makeup application must be properly sanitized to prevent infection.

This study applied funeral makeup to several types of cadaver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nce cadavers of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and cadavers of the elderly that lived alone received a lot of medical treatment at hospitals or senior care centers, most of them had facial deformation, skin discoloration and twists in the facial muscles and even outline with dents or twists in the eyes and lips. It was easy to cover skin discoloration, but it was difficult to correct the shape of the dent or twist of the mouth by massaging the upper and lower jaws strongly. In the dented parts in the eyes, eye caps were put, and the eyelids were attached. The dented part of the oral cavity was corrected by stuffing it with cottons. In order to reproduce their appearance before death, several methods of restoration were used.

Second, leprosy cadavers and nun cadavers were finished with base make-up, and for color make-up, shadow was skipped. Natural expressions could be made just by drawing the eye lines. In addition, the cheeks and lips could be expressed just by enhancing the complexion naturally.

Third, with fire casualties, the moisture of the blisters of fire cadavers was removed, and the frayed tissues were cut off. The discolored part was covered with wax, and the complexion was expressed with foundation. Blood stain and liquid came up during the make-up, so the part was removed, and the wax was applied to do the make-up. For fire casualties, there was a difficulty in doing that, since it required much attention in terms of technique.

Fourth, with Down's syndrome cadavers, wax was applied as a base, and they were dried with a hair dryer, and the base was finished with foundation and powder. Black color was put on the eyebrows, while the discolored eye sockets were shadowed and covered with dark violet color. Applying pink to the cheeks and lips completed the make-up beautifully, but as a result of an analysis, overall, it was most difficult to find the shape of the original face.

Fifth, with postmortem cadavers, the sutured thread was incised with

scissors to pull it all out, and starting with the job of injecting formalin into the incised tissue to prevent the cadavers from decomposition, for the head part, after chemical treatment in the skull, the part severed in half was glued and pasted twice to join the skull together. After drying it completely in this state, the severed part of the hair (hair root) was sutured. Since the hair root is weak,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uturing, and as for make-up, it was finished with base make-up. As a result of this study, overall, it was a work that took much time about ten hours and had many difficulties.

In conclusion, unlike Western culture, South Korean funeral culture strictly enforces the embalming process and the makeup application process and viewing time are short. Thus, in order to successfully develop the traditional funeral culture and to create a hygienic and beautiful funeral culture, there must be proper application of funeral make up as well as an improvement of funeral procedures and methods.

【Key Word】 funeral culture, funeral makeup, funeral hail, casualties, embalming.